

觀光釜山

Busan Tourism News

Vol.04 1
2011. January

송도 음악분수



釜山廣域市觀光協會
BUSAN TOURISM ASSOCIATION
<http://www.bta.or.kr>



대표이사 회장 정 판 덕

“KTX와 함께하는 거가대교 낭만여행”



대한민국 구석구석 국내여행~



실속있게 떠나자! 해외여행~



내생애 한번뿐인 허니문~



겨울 스키는 새부산과 함께~



특별한 낭만이 있는 섬여행~



테마가 있는 제주도여행~

- 출 발 일 : 매주 수, 토, 일, 공휴일
- 포 함 사 항 : 왕복 교통비, 여행자 보험, 입장료, 인솔비
- 불포함사항 : 중식, 개인경비
- 요 금 : 수요일 20,000원 / 토, 일, 공휴일 25,000원

일정	시간	새 부산관광 일정	식사
제 1 일	09:00	교대 국제신문 앞	자유 중식
	09:10	연산동 목화예식장 앞	
	09:30	서면R KT 맞은편 (서면역15번출구)	
	10:00	부산역 스타일웨딩홀 앞 (KTX 107번 열차) 가이드 미팅! 집결시간을 잘 지켜 주세요. ^^ 부산 - 거제 잇는 거가 대교 고고생~~~ ▶ 부산과 거제를 잇는 거가대교는 2004년 12월 첫 삽을 뜨지 6년 만에 완공되었습니다. 부산시 강서구 가덕도 천성동과 거제시 강목면을 연결하는 길이 8.2km 폭 20.5km의 4차로로 건설되었으며 총 연장 8.2km 가운데 해저 침매터널 3.7km 사장교는 4.5km입니다. ▶ 부산에서 거제까지 약 140km였던 구간이 약 60km로 단축되었어요. ▶ 새로이 개통된 거가대교를 신나게 달려 보아요~	
	12:20	학동몽돌해수욕장 도착 및 자유시간 ▶ 학동몽돌해수욕장은 거제의 대표적인 해수욕장입니다. ▶ 몽돌 가득한 긴 해변에서 잠시 쉬어 가요~ 개별 중식 (인근 식당 이용하세요...^^)	
	13:30	바람의 언덕 / 신선대 도착 및 자유시간 ▶ 1박2일 촬영지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바람의 언덕에서 추억을 만드세요. ▶ 신선대에서도 시원한 바닷바람 맞으면 절경에 폭 빠져 보세요~	
	15:00	차량집결 및 인원점검	
	18:30	부산도착 예정 (KTX 160번 열차) / 부산역 - 서면R - 연산R - 교대	

최신형 28/45인승 버스



예약 문의 051)851-0600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 (연산역 14번 출구) 앞

Nice busan
junggu

Where cultur is alive -

Trip to **YONGDUSAN & JAGALCHI**

Special Tourism Zone



용두산공원

자갈치시장

광복로

PIFF 광장

국제시장

근대역사관

보수동
채방골목

조선통신사
행렬

부산
용두산 | 자갈치
관광특구
jungg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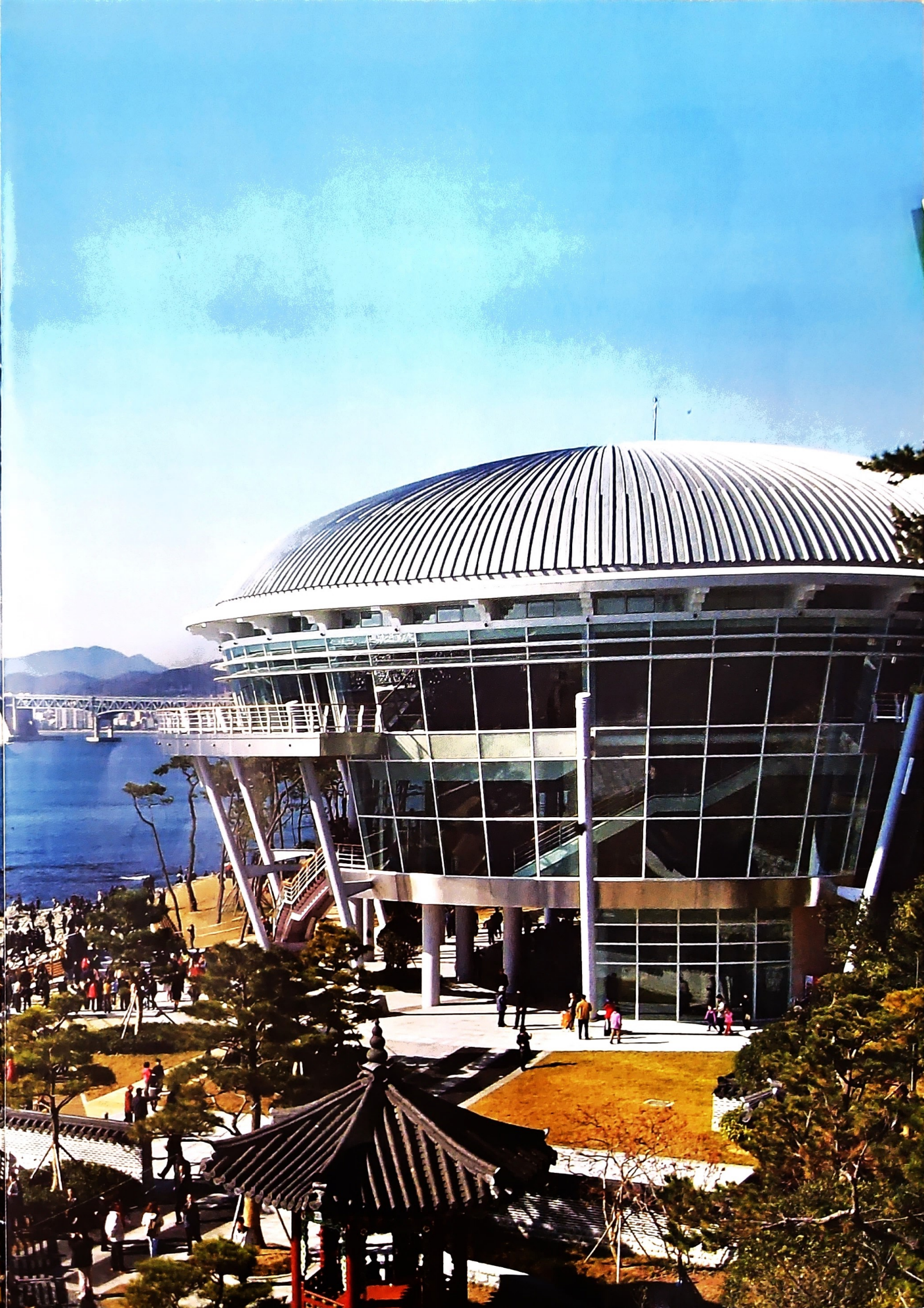
발행·편집인 이근후
 편집위원 손해식, 이평규, 김종규, 이해원, 김봉오
 편집국장 박성하
 취재기자 이효영 (김대현, 이민지 객원기자)
 발행일 2011년 1월 25일
 등록일 2010년 9월 27일
 등록번호 부산동리 00009
 발행처 부산광역시 관광협회 _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1동 569-2
 TEL. (051)463-3111, 463-3080 FAX. (051)463-0004
 편집실 부산시 시하구 하단동 870-95 니산리츠 202
 TEL. (051)206-7500 FAX. (051)205-7767
 E-mail, bljbusan@hanamil.net
 편집·디자인 보문디자인 (051)469-3563

* 이 책에 실린 글과 사진은 부산관광 발행처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매출)



표지 송도 음악분수

- 06 부산 서구 관광개발 청사진
- 11 2011년도 주요행사
- 12 모든 길은 부산으로 통한다
- 14 부산 찾는 외국인 관광객, 올 220만명 돌파
- 16 동부산관광단지 테마파크 최종 마스터플랜 확정
- 19 부산항 크루즈 여행객 5배 증가
- 20 하야리아 건조물 원형대로 보존
- 24 부산전차, 관광상품으로 시민에 공개
- 26 하늘이 내린 풍광 해넘이 명소, '다대포 몰운대' 전망대
- 29 해운대 모래축제 문화관광유망축제 선정
- 30 문현동·대신동·범일동 관광상품
- 31 부산의 등대
- 32 롯데광복점 아쿠아틱쇼 기네스북에 오르다
- 36 부산 시티투어버스 운행코스
- 38 호텔가 소식
- 44 올해 외국인 관광객 880만명으로 사상최대
- 46 칼럼·보수동 헌책방골목 유감 / 이평규 본지 편집위원
- 47 문화단상·그 겨울바다
- 48 칼럼·2010 부산 10대 히트상품 선정의 의미
/ 부산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우석봉박사





박극제 (朴克濟) 서구청장

- 동아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
- 부산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장
- 부산자동차매매사업조합 1,2,3대 이사장
- 재부 청도향우회 회장
- 부산 대신초등학교 총동창회장

부산서구 관광개발 청사진

**박극제 구청장과의 인터뷰

서구의 관광여건과 관광개발의 필요성

우리 서구는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원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곳으로 부산항 개항과 더불어 부산발전을 선도해 왔으며 교육·행정·수산·문화의 중심지이자 멋과 낭만이 있는 고장으로 1913년 개장한 전국 최초의 해수욕장인 송도해수욕장을 비롯하여 빼어난 해안절경을 자랑하는 암남공원, 송도해안볼레길, 자연과 절묘한 조화를 이룬 천마산조각공원과 사계절 아름다운 풍광의 대신공원, 수산물의 보고 부산공동어시장과 동아대학교 박물관 그리고 교육역사관과 민속생활관이 있는 꽃마을 구덕문화공원 등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가진 문화주거도시입니다.

교육·행정을 선도해 오던 우리구가 법조청사 이전 등으로 도심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천혜의 자연경관과 수산물류 산업, 해양레포츠 산업을 관광 자원화하여 관광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거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송림공원



구덕문화공원 조성과 송도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으로
새로운 관광인프라를 구축
부산고등어축제, 현인가요제, 송도바다축제,
구덕골 문화예술제, 해맞이축제, 정월대보름 달집축제,
부산항빛축제, 남항대교걷기, 송도해안볼레길 걷기 등
계절별 테마별 각종 문화예술행사 개최로 관광객에게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를 제공



구덕문화공원 조성과 송도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으로 새로운 관광인프리를 구축
부산고등어축제, 현인가요제, 송도바다축제,
구덕골 문화예술제, 해맞이축제, 정월대보름 달집축제,
부산항빛축제, 남항대교걷기, 송도해안볼레길 걷기 등 계절별 테마별 각종 문화예술행사 개최로 관광객에게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를 제공

최근 웰빙의 시대적 조류에 따라 암남공원 일원의 송도해안볼레길, 천마산10리길, 대신공원숲길, 구덕산책로숲길 등 그린웨이를 재정비하여 스토리텔링을 발굴하고, 최적의 그린워킹 환경을 조성하였고, 특히 지난 10월에 산림청과 숲가꾸기 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하는 아름다운 숲 공모에서 구덕문화공원 편백숲이 "아름다운 시민의 숲"으로 선정되어 최고상인 공존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지난해에는 송림공원일원의 벽천·음악분수대 등 송도공원 친수공간을 설치하는 송도관광테마공간 조성사업을 완료하고, 송도연안정비(2단계) 및 거북섬주변 테마공간 조성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송도 지역의 관광 인프라 확충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부민동 지역에는 동아대박물관과 연계하여 추진 중인 역사와 젊음이 공존하는 임시수도 기념거리 조성사업과 대학로 조성사업, 임시수도기념 전시교육관 건립, 아이동 행복마을 프로젝트,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이 가시화되면 우리구는 명실상부한 교육·문화·관광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서부산권 관광거점이 되기 위한 전략

남항 국제수산물관광단지 조성 계획, 송도 오션파크, 거북섬주변 테마공간 조성사업의 민자유치
송도 해수욕장에 해양레포츠센터 건립과 구름다리 복원으로 옛송도를 추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미래 수산물류 산업·송도 마린레저특구로 지정하고 송도해상에 바다 갤러리, 워터파크, 해상 레스토랑 등 송도 워터파크를 조성할 계획



구덕문화공원의 편백숲

남항 국제수산물관광단지 조성 계획, 송도 오션파크,
 거북섬주변 테마공간 조성사업의 민자유치
 송도 해수욕장에 해양레포츠센터 건립과 구름다리 복원으로
 옛송도를 추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미래 수산물류 산업·송도 마린레저특구로 지정하고
 송도해상에 바다 갤러리, 워터파크, 해상 레스토랑 등
 송도 워터파크를 조성할 계획



송도해안 볼레길

남항 국제수산물관광단지 조성 계획을 비롯한 국제수산물류·부
 역기지조성 3단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송도오션파크와
 거북섬주변 테마공간 조성사업의 민자 유치에 박차를 가하는 한
 편, 천마산에 천년의 숲과 엄광산에 산림문화 체험의 숲을 조성하
 며 구덕운동장을 복합문화공간 및 시민공원으로 재개발하고, 구덕
 천 생태복원 등으로 아름다운 녹색도시와 걷고 싶은 가로환경을
 가꾸어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아름답고 쾌적한 그린 환경을 만들
 어 관광객 유치에 극대화를 다하겠습니다.

남항대교·을숙도대교·거가대교의 개통으로 서부산권으로
 연결되는 남부순환로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함으로써 원도심 서부
 산권의 관광객 유입의 새로운 전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거가대교 개통은 서부산권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문화·관광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부산고
 등이 축제를 비롯하여 지역축제를 사계절 브랜드 축제로 육성해
 나가며, 해수욕장 사계절 활성화를 통한 차별화된 마케팅으로 테
 마별 행사를 관광상품화하여 품격있는 문화·관광 브랜드를 창출
 하겠습니다.

우리구는 단기적으로는 송도웰빙센터와 해양레포츠 시설이 크
 게 부족한 송도해수욕장에 요트, 윈드서핑 등을 즐길 수 있는 해양
 레포츠센터를 건립하여 지역 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증진
 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중·장년층의 많은 추억이 있는 장
 소인 송도해수욕장에 구름다리를 복원하여 옛 송도의 모습을 추억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천마산 조각공원

또한 전국 어선어업 어획량의 30%이상을 위관하는 공동 어시장 일원과 송도해수욕장, 모지포 국제수산물류 무역기지를 아울러 수산물류산업·송도마린레저 특화특구로 지정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송도 해상에 84,600m² 규모로 바다갤러리, 워터파크, 해상레스토랑 등 송도오션파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부산 남북항·감천항 일원의 도심 해안절경을 조망할 수 있는 송도 해상 곤도라케이블 건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현인가요제

지난해 국립수목과학검역원 영남지원 이전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이전지에 국립수산물진흥원을 비롯한 씨푸드벨리, 피쉬파크, 비즈니스호텔, 해변순환 리프트카, 터널수족관 등 국제수산물 무역기지 3단계 사업과 병행 추진하는 배후해양관광단지의 조성과 연계하여 케이블카가 건설되면 국내외 관광객, 시민 등 폭발적인 유동인구 유입으로 지역 경제활성화는 물론 전국 으뜸가는 관광명소가 될 것입니다.

손해식 편집위원(hssohn40@hanmail.net)

2011년 주요행사 일정

일월	행사명	일시	장소
3월	제25회 대통령기 전국시도 요트대회	3월	요트경기장
	부산국제연극제	3.23~4.11	문화회관 등
4월	대한민국 자전거 축전	4월중	삼락강변공원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	사직체육관
5월	Pret-a-porter	부산패션쇼	5. 4~6
	조선통신사 부산행사	5. 6~8	용두산공원
	부산오픈 국제남자 챌린저 테니스 대회	5. 7~15	금정체육공원
	부산아시아 단편영화제	5.11~15	해운대 메가박스
	부산콘텐츠마켓(BCM)	5.12~14	백스코
	제4회 부산항축제	5월중	부산국제크루즈터미널
	부산컵 및 아리랑 요트대회	"	요트경기장
	부산국제연극제	"	문화회관 등
	청소년예술제	"	시민회관
	2011 부산국제 기계대전	5.25~29	백스코
2011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5월말	누리마루 APEC 하우스	
6월	부산국제무용제	6. 3~8	해운대
	부산미술대전	6.12~13	문화회관
	국제철도물류전	6.15~18	백스코 외
	강스포츠클럽 축제	6월중	낙동강, 수영강
	국제서핑대회	"	해운대해수욕장
	제10회 부산과학축전	"	강서체육관
	2011 코리아오픈 공수도 선수권대회	6.24~26	기장실내체육관
7월	자원봉사 대축제	6~7월	시청 대강당
	부산무용제	7. 2~6	문화회관
	제16회 바다축제	7.31~8.8	해운대해수욕장 등
8월	제4회 부산국제 힙합페스티벌	8월초	해운대해수욕장
	제6회 부산국제 매직페스티벌	8. 4~8	백스코 등
	부산 e스포츠 페스티벌	8. 5~6	광안리해수욕장
	제12회 부산국제 록페스티벌	8. 5~7	다대포해수욕장
	제6회 부산어린이영화제	8.10~14	MBC롯데아트홀 등
	제1회 그린환경기술 국제학술대회	8.22~23	백스코
	제4회 부산국제 광고제	8.25~27	부산영상센터 등
	2011 IT EXPO BUSAN 및 로봇경진대회	8.31~9. 3	백스코
9월	제14회 부산국제관광전	9. 2~5	"
	국제환경에너지 산업전	9.28~10. 1	"
10월	2011년 부산국제 건축문화제	10. 5~9 백스코	특별전시장
	제16회 부산국제영화제	10. 6~14	부산영상센터 등
	부산영화산업 박람회	10. 8~10	백스코
	아시아 영상정책포럼	10. 9~10	"
	Pret-a-porter 부산패션쇼	10.13~15	"
	부산국제 신발섬유 패션 전시회	"	"
	부산 길맛길 축제	10월중	부산 전역
	2011 부산국제 음식박람회	"	백스코
	제20회 자갈치축제	"	자갈치시장
	세계여자매치 레이스요트대회	"	해운대해수욕장
	2011 부산국제 조선해양대전	10.26~29	백스코
부산세계 불꽃축제	10.28~29	광안리해수욕장	
11월	2011 세계해양포럼	11월초	백스코
	제10차 세계한상대회	11. 2~4	"
	제3회 부산국제 의료관광컨벤션	11. 3~5	롯데호텔
	제9회 부산국제무역 EXPO	11.10~12	백스코
	국제콘텐츠 개발자 콘퍼런스	11월	"
	2011 한중일 기상학회	"	누리마루 APEC 하우스
	지스타 2011 국제게임 전시회	"	백스코
	부산국제 합창제	"	문화회관
	제31회 부산미술제	"	"
	2011년 4차원 원조효과 고위급회의	11.29~12. 1	백스코
12월	부산항 빛 축제	12월중	남항 등
	2011년 해넘이 축제, 시민의 종 타종식	12.31	용두산공원



땅 · 바다 · 하늘로 열린 아시아의 관문 모든 길은 부산으로 통한다

부산-서울 직통 KTX, 거가대로와 부산신항 배후철도를 속속 개통, 부산 물류의 사
통팔달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국내 최대 물류 중심지로 불리는 부산을 중심으로 한
동남권은 말 그대로 물류와 생활, 관광면에서 제2 르네상스 물 맞고 있다.

새해 들어 도시철도 4호선(반송선), 부산-김해 경전철이 잇따라 개통한다. 국내 첫
무인 경전철로 기록 될 도시철도 4호선은 3월 개통한다.

KTX 완전개통으로 2시간 40분 걸리던 부산-서울간 소요시간이 2시간 18분으로
줄었고, 부산에서 1시간 내 통행 가능 도시가 늘어났다. 울산과 경주 접근시간은 30
분대로 줄어들었다. 거가대교 개통으로 부산-거제간은 2시간 10분에서 50분으로 줄
었다. 2015년 을숙도대교-천마터널-남항대교-영도연결대교-북항대교-신선로-광
안대로로 이어지는 해안순환도로망이 완성되면 부산시내에서 거제까지 1시간 10분
남짓이면 오갈 수 있다.

올해 부산은 매력 있는 '영상 · 문화 · 관광도시' 의 위상을 한껏 높이는 해가 될 전
망이다. 부산영상센터 '두레라움' 을 완공, 부산국제영화제는 세계적인 영화제로 한
단계 더 도약한다. 아름답고 독창적인 '부산 오페라하우스' 도 북항 재개발 지역에





“ 올해 부산은 매력 있는 ‘영상·문화·관광도시’의 위상을 한껏 높이는 해가 될 전망이다. 부산영상센터 ‘두레리움’을 완공, 부산국제영화제는 세계적인 영화제로 한 단계 더 도약한다. 아름답고 독창적인 ‘부산 오페라하우스’도 북항 재개발 지역에 건립,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부산의 랜드마크로 만든다. 영화체험박물관도 2013년 개관을 목표로 건립에 박차를 가한다. ”

건립,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부산의 랜드마크로 만든다. 영화체험박물관도 2013년 개관을 목표로 건립에 박차를 가한다.

부산의 정체성이 살아 있는 자갈치시장 일대는 센트럴베이와 롯데타운, PIFF 거리 등과 연계한 국제수산물관광단지로 조성한다. 도심내 생태계의 보고인 을숙도 일원은 세계적인 ‘자연생태체험 관광지’로 꾸민다. 가덕도 일원은 관광, 레저, 휴양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세계적인 복합 관광 휴양지로 개발한다. 기가대교와 KTX 완전개통을 발판으로 부산이 남해안 관광시대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교통과 관광을 연계 발전시키는 방안도 적극 추진한다.

국제 크루즈터미널과 UN 평화기념관을 건립, 국내외 관광객이 ‘문화도시 부산’의 품격을 한껏 느끼도록 한다. 수영만 요트경기장도 재개발, 새롭게 단장한다. 각종 마리나 시설과 편의시설을 확충해 다양한 대회와 축제를 개최하는 등 해양레포츠 문화의 지평을 확대한다.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예술인 창작공간을 더 많이 조성하고 문화자원 탐방 프로그램을 늘리는 등 시민이 생활 가까이에서 문화예술을 더 많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한다.

이효영 기자(tourbusan@daum.net)



부산국제영화제



부산 크루즈터미널



부산 찾는 외국인 관광객, 올 220만명 돌파

올해 부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외국인 관광객 200만명 시대'를 열었다. 연말까지 부산방문 외국인 관광객 수는 220만 명을 돌파할 전망이다.

부산시는 지난 11월까지 부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숫자가 206만54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의 186만3409명보다 10.6%(19만6645명)나 급증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같은 숫자는 2009년 부산을 방문한 전체 외국인 관광객 202만6070명보다 3만3084명이나 많으며, 부산시가 관광통계를 작성한 이래 가장 많은 숫자다.

특히 지난해 엔고 특수로 일본인 관광객이 폭증한 가운데 기록된 사상 최고의 외국인 관광객 숫자마저 11개월 만에 경신한 것이어서 부산이 '외국인이 찾고 싶은 국제관광 도시'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처럼 부산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부산시의 체계적인 관광마케팅이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된다. 부산시는 올해 '포스트 엔고 특수시대'에 맞춰 일본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한국관광공사와 공동으로 부산불꽃축제 부산국제영화제 등 차별화된 관광상품으로 일본 현지 언론 광고와 모객 마케팅 등 부산방문 특별캠페인을 벌였다. 이

같은 적극적인 마케팅에 힘입어 5월부터 일본인 관광객의 감소세가 꺾이고 증가세로 반전됐다.

부산항을 찾는 크루즈가 급증한 것도 한몫했다. 올 들어 연말까지 크루즈 선박이 모두 79차례(단순기항 47차례, 모항운항 32차례) 기항하면서 부산항을 오간 관광객이 17만9150명이나 됐다. 이는 지난해 4만1544명보다 4.3배나 늘어난 것이다. 여기에서 '부산관광의 블루오션'으로 등장한 중국인 관광객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도 빼놓을 수 없다. 올 11월까지 부산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43만452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9만7140명보다 무려 46.2%나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중국인 관광객 32만730명보다 11만3799명이 늘었다. 이 같은 중국인 관광객은 역대 최고치에 해당한다.

권정오 부산시 관광진흥과장은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자리잡은 부산불꽃축제 등 부산만의 특화된 관광콘텐츠에다 크루즈 관광객 급증 등으로 올해 사상 최고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 실적을 기록했다"면서 "내년에도 거가대로와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과 중국인 관광객 유치 등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 250만 명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김대현 객원기자



최대 쇼핑 관광축제 부산, 새해 첫 '그랜드 세일', 외국인 최고 50% 할인

부산시가 새해 벽두부터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대대적인 '부산 그랜드 세일'에 나섰다. 부산시는 지난 10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50일간 해운대, 남포동, 광안리, 서면 등 관광특구 및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2011 코리아 그랜드 세일'과 연계한 '2011 부산 그랜드 세일'을 펼친다. 부산시와 한국방문의 해 위원회가 주최하고, 부산시관광협회가 주관하는 대대적인 이번 '그랜드 세일'에는 부산지역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쇼핑업체 11곳, 롯데와 파라다

이스 등 특급 및 1급 호텔 13곳, 식음료 업체 22곳, 공연시설과 은행 등 24곳을 비롯해 2천 300여개 업소가 참여한다.

이들 업소는 외국인 관광객과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가격을 5-50% 할인해 주고, 사은품을 증정한다. 할인쿠폰 소지자에게는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할인쿠폰은 공항, 여객터미널 등의 관광안내소, 주요 호텔, 여행사 등에서 나눠준다.

※문의: 관광진흥과 (T. 888-8227)

부산의 역사성을 담은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하드웨어에 ‘부산성’을 담은 소프트웨어를 결합하면 된다. 예를 들어 영화 ‘해운대’를 배경으로 한 보트 라이드라면 차별화될 것이다. 실시설계에서는 부산의 정서를 담은 프로그램 개발에 공을 들이겠다”고 말했다.



동부산관광단지테마파크 조감도

동부산관광단지 테마파크 최종 마스터플랜 확정

부산 기장군 동부산관광단지의 선도사업인 테마파크 최종 마스터플랜 보고회가 최근 부산시청에서 열렸다. 민간 사업시행자 CJ그룹은 “아시아 최대의 문화테마파크를 건설하겠다”고 말했다. 테마파크의 지향점은 영상영화파크 개념의 ‘스튜디오 시티’다. 동부산관광단지가 투자 유치에 실패하면서 10년간 허송세월한 점을 의식한 듯 “CJ그룹은 한다면 반드시 한다. 영화·영상·게임·쇼 콘텐츠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 것이 장점이다”고 강조했다.

테마파크의 규모는 49만9000㎡이며 건축 연면적은 17만 6220㎡(5만 3400평)이다. 착공시기에 대해 CJ그룹은 “내년 5월까지 특수목적법인(SPC)과 재무적 투자자를 확보해 2012년 첫 삽을 뜰 것이다”고 말했다. 동부산관광단지에 관심을 갖게 된 배경에 대해 “부산시가 동부산권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자문을 하면서 영화영상도시의 잠재력에 매료됐다. 지난 10개월 동안 CJ그룹 11개 계열사와 해외 전문가를 합쳐 250여 명이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데 참여했다. 부산에서 생산한 문화 콘텐츠를 해외에 수출하는 것이 목표다”

고 밝혔다.

테마파크의 수익모델은 주로 공연과 쇼다. 다른 테마파크와 차별화하기 위해 타기 위주의 놀이시설(라이드)은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연간 입장객은 최소 450만 명으로 잡았다. “관객들이 심사위원들 앞에서 노래를 잘 하면 신인가수로 데뷔할 수 있는 스타발굴 프로그램이 있다. 애니메이션이나 영상물을 창작해 상업화하는 공간도 만든다. 우리가 구상하는 테마파크는 참여형이다. 그래야 관객들도 연중 찾을 것 아닌가.”

부산의 역사성을 담은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하드웨어에 ‘부산성’을 담은 소프트웨어를 결합하면 된다. 예를 들어 영화 ‘해운대’를 배경으로 한 보트 라이드라면 차별화될 것이다. 실시설계에서는 부산의 정서를 담은 프로그램 개발에 공을 들이겠다”고 말했다.

테마파크의 사업비는 총 3300억 원이며, 사업 부지는 부산시에서 50년간 무상 임대하는 조건이다.

이민지 객원기자

“최근 관광수요의 패턴이 도심형 또는 정주형을 선호함에 따라 단지형, 복합형 관광지 개발을 지향하는 추세이나 현행법은 이를 금지하고 있다”면서 “싱가포르나 두바이의 경우 휴양형 별장이 많은데 변화되는 관광 트렌드에 맞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지난달 국회 부결로 무산 위기에 처했던 부산 기장군 동부산관광단지내 휴양형 주거시설 허용을 위한 관련 법안이 지역 정치권 주도로 재추진된다. 이 법안이 2월께 확정될 경우 동부산관광단지 개발 사업이 활기를 띠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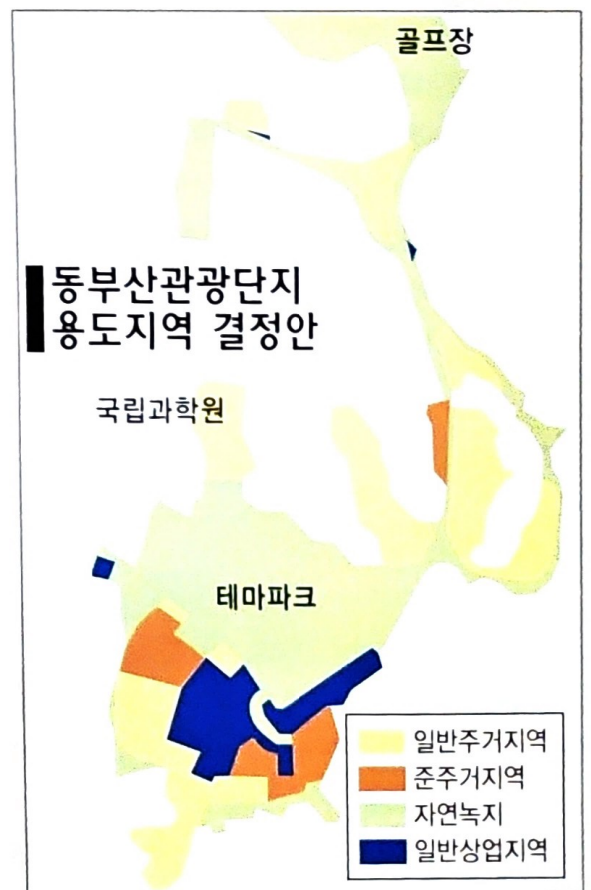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소속 한나라당 허원재 의원(부산진갑)이 대표발의해 관광지 및 관광단지 등에 휴양형 주거시설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 발의 의원 13명 가운데 허 의원을 비롯해 유기준·현기환·박대해·이종혁 의원 등 9명이 부산이 지역구인 의원들이다. 이 개정안은 50만㎡ 이상의 관광단지에 △가용 토지의 10% 이내 △주택의 최소규모는 20가구 이상 △주택형태는 4층 이하의 단독·공동주택으로 휴양형 주거시설 도입을 허용하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당초에는 이 같은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으로 지난달 3일 정부 입법으로 문방위에 상정했으나 민주당 측이 "4대강 개발후 주변에 아파트시설 등을 지을 수 있는 4대강 지원법"이라며 반발해 부결됐다. 허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는 당초 시행령에 들어갈 저층 휴양 시설 내용을 명확히 해 야당을 설득했는데 2월 중 상정되면 통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허 의원은 "최근 관광수요의 패턴이 도심형 또는 정주형을 선호함에 따라 단지형, 복합형 관광지 개발을 지향하는 추세이나 현행법은 이를 금지하고 있다"면서 "싱가포르나 두바이의 경우 휴양형 별장이 많은데 변화되는 관광 트렌드에 맞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현행 관광진흥법은 관광단지내 도입 가능시설이 공공편익, 숙박, 오락 등 장기운영시설로 제한돼 있어, 전국의 상당수 관광단지가 투자유치 부진 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동부산관광단지추진단 윤종석 단장은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14만~16만㎡ 부지의 분양 길이 열려 이자부담 해소와 함께 단지개발이 활기를 띠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효영 기자(tourbusan@daum.net)

동부산관광단지 휴양형 주거시설 재추진

‘가용토지 10% 이내’
포함 지역
정치권 개정안 발의





광안리 앞바다에 해상크루즈 리조트 뜬다

부산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 앞바다에 해상 크루즈 리조트인 웨일 크루즈 무동력 선박이 뜬다. 이 사업 제안사인 (주)부산크루즈 아일랜드 박영근 대표는 “해양도시 부산의 차별화된 이미지를 살려 움직이는 해상 크루즈 리조트 개념인 웨일 크루즈 사업은 광안대교 불꽃축제와 함께 광안리의 세계적 볼거리로 자리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웨일 크루즈는 광안리해수욕장 앞바다에 길이 130m, 폭 60m, 면적 7800㎡ 규모의 무동력 선박인 바지선을 띄워 리조트처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총중량 9000t의 대형 선박인 이 웨일 크루즈는 지하 1층-지상 4층으로 이뤄져 있다. 이르면 오는 2013년 4월 개장하게 될 이 웨일 크루즈는 9000급 부산으로 컨벤션 시설, 테마별 체험관, 해상호텔과 수영장, 극장 및 레스토랑 등 부대시설을 갖출 계획이다. 사업비 1000억~1050억 원은 전액 민간투자자로 추진되며, 2011년 3월까지 제반 행정절차를 거쳐 2013년 3월까지 선박제작을 완료할 예정이다. 국내에서 처음 선보이는 이 구조물은 바다의 수면보다 0.5~1m 높게 떠 있는 형태여서 파도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 이 때문에 크루즈선과는 달리 파도나 조류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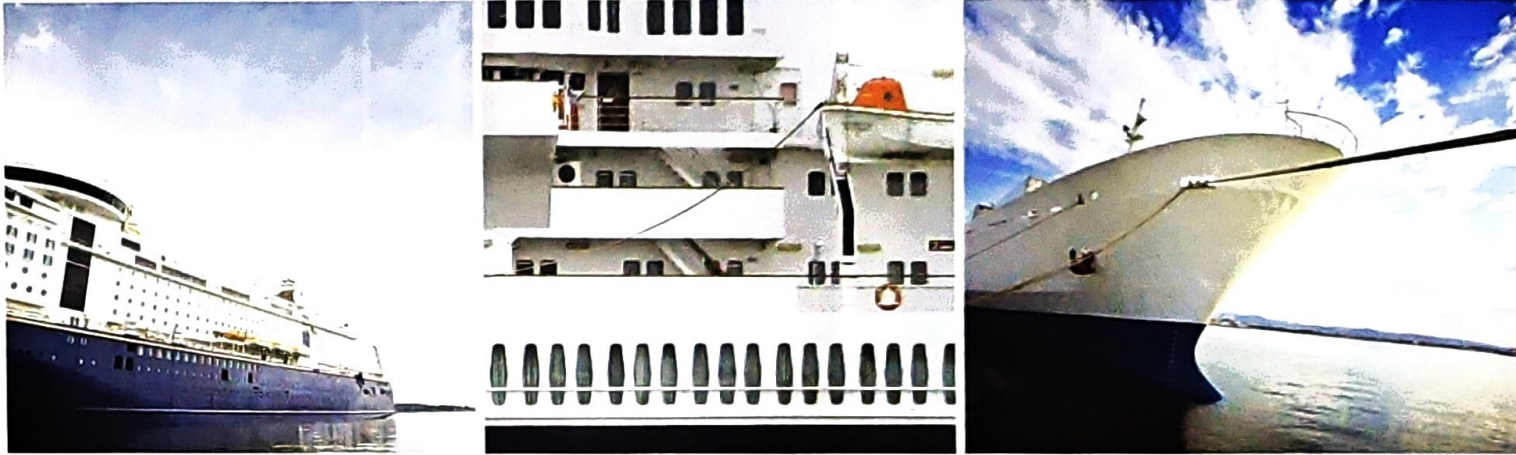
의한 흔들림이 전혀 없다.

(주)부산크루즈아일랜드측은 “석유 시추선처럼 크루즈선에 6개의 발을 내려(잭업 공법) 해저에 완전 고정 가능하고, 고정 상태에서 15m까지 크루즈선을 상승시킬 수 있어 태풍 등 악천후에도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엔진이 없는 무동력 선박으로 환경 친화적이며, 이동 시에는 100~200급 예인선을 이용하게 된다고 한다. 웨일 크루즈는 매주 정기적으로 광안리 또는 해운대 해안으로 근접 이동해 무료 야외공연 등을 계획하고 있어 광안리와 해운대 해수욕장의 사계절 이용은 물론이고 주변지역 상권 활성화도 기대된다.

권정오 부산시 관광진흥과장은 “웨일 크루즈가 KTX 2단계 및 거가대교 개통에 따른 국내 관광객과 최근 급증하는 중국 관광객 수요를 충족함은 물론 해양관광 도시 부산의 이미지 제고 및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 등”을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대현 객원

부산항 크루즈 여행객 5배 증가



부산항을 모항으로 한 크루즈 상품이 늘어나면서 지난해 부산 국제크루즈터미널을 이용한 여행객이 전년도에 비해 5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한해 부산항을 찾은 국제크루즈선은 79척으로, 2009년 34척에 비해 45척이 늘어났다. 또한 크루즈선을 통한 여행객 출입국자수는 17만9천여명으로 전년도 3만4천400여명에 비해 5.2배 급증했다. 이 가운데 외국인 출입국자는 15만3천800여명, 내국인은 2만5천300여명으로 각각 나타났다. 이처럼 크루즈 관광객이 급증한 것은 부산항을 모항으로 하는 크루즈 상품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2009년에는 부산항을 모항으로 한 크루즈 상품이 없었지만, 지난해에는 30여차례로 늘어났다. 세계 2위 크루즈선사인 미국 로열 캐리비안 인터내셔널(RCI)이 지난 4월2일을 시작으로 17차례, 코스타 크루즈가 16차례 부산항을 모항으로 한 크루즈 상품을 선보이면서 관광객의 부산항 유입을 이끌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내국인의 크루즈 여행 수요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며 “외국인을 위한 국내 관광상품과 내국인을 위한 해외여행 상품이 다양화되면 부산항의 크루즈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효영 기자(tourbusan@daum.net)

Greater Busan CVB

부산관광컨벤션뷰로

"당신의 미소가 필요합니다."

부산 시민들의 참여와 봉사로
우리 부산이 세계적인 컨벤션 도시
순위에서 27위를 차지했습니다.

홍콩, 상하이, 시카고보다 더 많은
국제회의가 부산에서 개최될 뿐만 아니라
많은 외국사람들이 부산을 더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컨벤션을 통해 부산에 회의 차 방문하는
외국 VIP를 유치하는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마이스 산업을 통해 국내외의 모든 비즈니스맨들이
부산으로 몰려오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 성공의 열쇠는 바로 '미소'입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미소로
부산은 홍콩보다, 상하이보다
더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어갑시다.

www.busanclub.org
Tel: 051)740-3600
Fax 051)740-3640



하야리아 건조물 원형대로 보존

부산시는 시민공원으로 조성하는 하야리아 부지 내 건조물 가운데 건축물 40곳과 시설물 18곳 등 모두 58곳을 보존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최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5차 하야리아 라운드테이블(Round Table) 회의를 갖고, 건조물 보존 방안을 확정했다.

보존대상 건조물 가운데는 마권판매소 등 건축물 28개동과 경마 트랙 등 시설물 10곳을 필수보존 대상으로, 학교 및 소방서 등 건축물 12개동, 마사흔적지 등 시설물 8개소 등을 선택보존 대상으로 결정했다. 필수 보존대상 건축물은 마권판매소와 위관급 관사 3개동, 극장, 하사관 관사 15개동, 퀸셋막사 5개동, 사령관 관사, 종교시설, 사령부 등이다. 시설물은 경마트랙, 헬기장, 일본육군 상징석, 임시

군속 훈련소 표지석, 순도장표시, 전봇대, 국기 게양대, 굴뚝, 종탑, 철조망 등이다. 선택 보존대상은 퀸셋막사 6개동, 학교, 소방서, 통신수송대, 독신지숙소 2개동, 유치원 등이며, 시설물은 기존도로 4곳, 위병소 2개소, 마사흔적지, 수영장 등이다. 선택 보존대상은 부산시민공원 설계방향에 따라 보존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부산시 시민공원추진단 윤상우 주무관은 "하야리아 부지 내 건축물 보존과 관련, 전문가 자문, 5차례에 걸친 라운드테이블 회의, 시민여론 조사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며 "전체 338개동 건축물 가운데 역사성과 활용성, 상징성 등을 기준으로 보존건축물을 선별하고, 보존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효영 기자(tourbusan@daum.net)

하야리아 터 문화재 발굴 2월 착수

부산시민공원(가칭)으로 조성될 하야리아 터에 대한 문화재 발굴이 2월부터 시작된다. 부산시는 최근 실시된 시굴조사에서 청동기시대부터 삼국시대, 조선시대에 이르는 다양한 문화재가 출토된 하야리아 서쪽 마권관매소 주변과 동쪽 사령관 숙소 주변 구릉지에 대한 문화재 발굴허가를 공식 통보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앞서 부산시는 지난 10월부터 2개월간 동양문물연구원이 벌인 하야리아 문화재 시굴조사 요약보고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하고 발굴허가를 요청했었다.

문화재청이 발굴을 허가한 지역은 하야리아 서쪽 마권관매소 주변 13만 m²와 동쪽 사령관 숙소 주변 1만 m²이다. 이는 당초 부산시가 시굴조사한 마권관매소 주변 18만 m²보다 5만 m², 사령관 숙소 주변 2만5000 m²보다 1만5000 m²씩 각각 줄었다. 이는 시굴조사

지역 중 문화재 출토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면적을 축소했기 때문이다. 부산시는 이에 따라 다음 주 중 문화재 발굴을 위한 업체 모집 공고에 들어가 1월 중 발굴업체 4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발굴업체는 1월 28일로 예정된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에 발굴계획을 보고한 뒤 2월부터 발굴에 나서게 된다. 발굴에 소요되는 비용은 32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오염지역에 대한 발굴비용은 국방부로부터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어 부산시가 부담할 금액은 20억 원가량으로 추산된다.

최정호 부산시 시민공원추진단장은 “부산시는 발굴 면적이 넓은 마권관매소 주변 13만 m²를 2등분으로 나눠 지역마다 2개 업체씩 조사를 맡길 계획”이라며 “문화재 발굴에는 6개월에서 최장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총렬사 안락서원 체험 프로그램 운영

총렬사 안락서원 교육회관이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연중 다채로운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통문화체험교실 △기초한자교육 △부모와 함께하는 전통예절교실 등 초·중·고교생들과 학부모가 함께 하는 프로그램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생 전통생활예절교육 △다문화학생 전통예절교육 △주부·청·장년 노인들이 함께하는 선현의 가르침 강좌 등 전통문화체험 뿐 아니라 인성·효 교육, 사회적응 프로그램도 함께 한다. (*참가비 무료)

그밖에 총렬사 안락서원은 전통 혼례장과 대강당을 부산 시민에게 빌려 준다. 대여료는 혼례장은 1시간 10만원, 대

강당은 1시간 14만원. 참여프로그램 참가신청과 시설대여는 전화(531-6007~8)또는 직접 방문해서 접수하면 된다.



코리아패스 '부산관광카드' 발행



가맹점에서 다양한 할인혜택을 누릴 수 있는 '코리아패스 부산관광카드'가 이달 중 발행된다.

부산시는 최근 한국관광공사와 공동으로 관광객을 대상으로 '코리아패스 부산관광카드'를 발행하기로 하고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에 발행되는 관광카드는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 가맹점 62개사 6000여 점포에서 할인혜택을 받고 일반 신용카드

와 마찬가지로 결제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교통카드로도 사용할 수 있다. 김해공항이나 국제여객터미널, 편의점 등에서 쉽게 물건을 사고 환급할 수 있어 부산을 찾은 관광객이 쉽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시는 일본 후쿠오카와 오사카에서도 부산관광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통합카드 개발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선진국형 회전교차로 해운대 송정해수욕장 입구 설치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 주는 회전교차로가 송정해수욕장 입구에 설치됐다.

선진국형 회전교차로는 신호등으로 인한 지체시간이 없으며 유지관리비용도 일반교차로에 비해 저렴해 유럽과 미국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교통체계다.

도로교통공단의 실시설계 용역결과에 따라 지난해 10월 공사를 시작해 최근 완공된 송정 회전교차로는 '중앙 교통섬'으로 유도하는 '분리 교통섬'과 우회전 전용차로가 함께 설치됐다.

부산에서는 남구 용호동 성모병원 입구 교차로와 서구 대신동 구덕운동장 인근 교차로 등 모두 4곳에 선진국형 회전교차로를 설치운영, 이 지역의 교통 소통이 원활해 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에어부산 등 저비용 항공 4개사 급성장 지난해 모두 매출액 1천억 원 넘어서

에어부산과 제주항공, 진에어, 이스타항공 등 국내 저비용항공 4사가 지난해 급성장한 나머지 매출은 모두 1천억원을 넘어서었다. 에어부산은 지난해 1천200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전년도 보다 70% 가량 매출이 증가한 것이다. 에어부山的 지난해 영업이익은 40억원으로 예상돼 2008년 10월 취항 이후 저비용항공사 가운데 가장 단기간에 흑자전환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제주항공은 지난해 1천600억원 가량의 매출을 올려 전년(880억원)보다 80% 신장세를 기록했다. 영업손실은 50억원 대로 흑자전환에는 실패했지만, 당초 손실을 120억원으로 예상했던 점에 비춰보면 선전한 것으로 평가된다. 진에어는 전년도

보다 2배로 늘어난 1천200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 회사는 특히 70억~80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해 저비용항공사 가운데 최대 흑자를 낼 것으로 기대됐다. 이스타항공은 매출 규모 면에서 가장 큰 폭으로 성장했다. 2009년 443억원의 매출을 올린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1천83억원의 매출을 기록해 145%의 증가율을 보였다. 그러나 50억 원가량의 영업손실을 기록해 적자에선 벗어나지 못했다.

저비용항공사들이 지난해 큰 폭으로 매출을 늘릴 수 있었던 것은 국제선 취항을 본격화하고, 항공수요도 급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김대현 객원기자

에어부산, 저비용항공사 중 A321 기종 첫 도입, 타이페이 노선 취항

에어부산(대표 김수천)은 27일부터 부산~타이페이 노선에 투입할 7호기 A321-200 항공기를 도입했다. 에어부산은 그동안 B737-500(127석) 3대와 B737-400(162석) 3대 등 총 6대의 항공기를 보잉사 기종으로 들여왔으나 이번에 에어버스 기종을 처음 도입했다.

국내 저비용항공사 가운데 처음으로 도입된 A321 기종

의 경우 최대 220석까지 운영할 수 있지만, 좌석수를 195석으로 줄이고 좌석간 거리도 여유있게 조정해 승객의 쾌적한 여행을 도울 계획이다.

에어부산은 또 부산~타이페이 노선에 기내식을 제공하고 실시간 비행정보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오디오와 LCD모니터 등 엔터테인먼트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부산전차, 관광상품으로 시민에 공개 동아대 부민캠퍼스 앞 문화의 거리서 전시



1950~60년대 부산시민의 발이 되어준 '추억의 부산차'가 부산시민 품으로 돌아왔다. 동아대는 구덕캠퍼스 보관 중이던 추억의 부산전차를 복원, 부민캠퍼스 범학문대학원 앞 문화의 거리로 이전·설치하고 지난달 23일부터 부산시민에 공개했다.

동아대가 보관하던 전차는 국내에 남아 있는 전차 3 가운데 하나다. 길이 14m, 너비 2.8m, 높이 3m 크기로 표

은 철제로, 내부는 목재로 만들어졌다. 26석의 좌석과 미달이문이 양쪽에 2개씩 있다. 입석을 포함하면 100명이 탈 수 있다. 전진과 후진 가능했기 때문에 전차의 앞뒤 모양이 같은 것이 특징으로 좌우 미달이문을 통해 오르내렸다. 미국에서 만들어져 로스앤젤레스에서 운 하던 시영전차를 1952년 6월 19일 무상원조 받아 중앙동, 광복동, 영도 등 30여개 역에서 1968년 5월 19일까지 운행했다. 동아대는 한국력의 전신인 남선전기주식회사로부터 학습용으로 기증받아 1999년 2월 23일부터 동아대 구덕캠퍼스에 보관해 왔다. 국내에 남아 있는 마지막 전차 두 대는 일본에서 만들었으며 서울역사박물관과 국립서울과학관에 복원돼 있다.

조규환 동아대 총장은 "구덕캠퍼스에 있던 전차를 부민캠퍼스로 옮기자, 부산시민들에게 부산 임시수도 종합행사였던 동아대 박물관과 더불어 부산의 옛 역사를 고스란히 보여주게 됐다"며 "동아대 박물관과 마찬가지로 전차도 시민의 것인 만큼 누구나 무료로 언제든지 와서 관람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서구(구 청장 박극제)는 부산전차 복원과 시민 공개를 계기로 부산임시수도 기념거리 일대에 전차종정 기념비와 전차모형 승강장을 마련하는 등 부산전차를 관광상품으로 홍보해 나갈 방침이다.

가격도 스마트! 스케줄도 스마트!
에어부산으로 일본여행이 스마트해진다



에어부산, 후쿠오카 · 오사카 운항중! 타이페이노선 취항!

지금까지의 일본 · 타이페이여행은 모두 잊으십시오.
스마트한 항공사 에어부산으로 후쿠오카 · 오사카 · 타이페이여행이 스마트해집니다.
에어부산만의 합리적인 가격에 아시아나항공 공동운항으로 편리한 스케줄까지!
이제 에어부산으로 일본 · 타이페이여행을 가장 스마트하게 즐기세요!

<p>부산</p> <p>부산 - 후쿠오카(월) - 10:30~12:00 *편도 1,200원(세) - 11:50~12:00</p> <p>부산 - 오사카(수) - 11:00~12:00 *편도 1,200원(세) - 10:50~12:00</p>	<p>후쿠오카 부산</p>	<p>오사카</p> <p>오사카 - 부산(수) - 12:00~13:00 *편도 1,200원(세) - 11:50~12:00</p> <p>오사카 - 타이페이(수) - 12:00~13:00 *편도 1,200원(세) - 11:50~12:00</p>
---	----------------	---

● 다대포 늪운대



하늘이 내린 풍광 해넘이 명소, '다대포 물운대' 전망대



낙동강 1300리 물길, 강물로서 생을 다하고 바닷물과 만나는 다대포 물운대!

노을에 물든 물운대 일몰이 잘 익는 홍시처럼 빨갛다. 지난해 개장한 물운대 낙조 전망대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다대포 꿈의 낙조분수를 포함한 해수욕장 연안정비 사업과 연계관광지로써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3월 물운대성당 앞 아미산 전망대가 들어서면 물운대 낙조전망대~다대포 꿈의 낙조분수~아미산 전망대로 이어지는 낙조 관광벨트가 만들어지면 삶과 휴식, 소통의 부산관광 1번지로 거듭나게 될 전망이다.

아름다운 질주

잠미, 진달래, 빛나무, 구실잣밤나무, 소나무.....
푸르른 공원에서 만나는 살아 숨 쉬는 자연!
그 속에서 세터른 재미와 행복이 넘쳐납니다.

365일, 자연의 활력을 내뿜는 곳!
스포츠 안에서 자연의 푸르름과 즐거움을 만나세요.

부산관광진흥회 부산관광진흥회 부산관광진흥회



- www.sport.co.kr
- 사이드룸 경륜장**
 - 스무츠**
테니스코트 / 풋살장 / 다목적 친디구장 / 축구장
 - 자연휴식공간**
수변공원 / 숲속길 / 가족공원
탄성모창 조깅로 및 자전거 순환도로
 - 스�포츠센터**
워터파크 / 수영장 / 키즈랜드 / 휘트니스
게임존 / 실내체육관 / 실내골프 / 스크린골프
 - 교육·전시**
탄생의신비관 / 재난안전체험관 / 꿈나래어린이극장
싸이토미아 / 해피시니어
 - 엔터테인먼트**
3D·4D영화상관 / 물놀이보트 / Wii & PLS3
MTB랜드 / 벽천문수

부산시 금정구 두구동 669 콜센터 1577-0880 | **Spo** 부산지방공단 **스포원**

누리마루 APEC 하우스 개관 2시간 늘려



부산광역시와 (주)백스코는 부산의 대표 관광명소인 누리마루 APEC 하우스(사진)의 개관시간을 1월 1일부터 오전 9시~오후 6시로 늘린다. 종전 오전 10시~오후 5시 운영했던 것보다 2시간 더 늘어났다. 이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 관람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누리마루 APEC 하우스는 지난 2005년 개관해, 2010년 9월 30일 현재 800만8만8천명이 방문했으며, 1일 평균, 평일은 2천명, 휴일에는 4천명의 관람객이 찾고 있다. 매월 첫째 주 월요일은 정기 휴관한다. (문의전화. 744-3140)

부산시내 교통흐름 정보센터견학 추진

부산이 인터넷과 휴대전화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목적지까지 가는 가장 빠른 길, 사고·정체지점, 대중교통 환승정보, 버스도착 시간 등을 제공하는 지능형교통정보시스템을 갖추고, 시민에게 개방한다.

최신 교통정보 서비스 제공사실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 지난 22일부터 개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센터견학을 추진하고 있는 것. 견학대상은 국내외 개인 및 단체(초·중·고·대학생 및 유치원생)로 1회 인원은 5명 이상 40명 이내. 시간은 오후 2시와 4시 두차례로 (전화.600-0252) 또는 홈페이지(its.busan.go.kr)를 통해 가능하다.



※문의 : 교통정보서비스센터 (T. 600-0252)

해운대 모래축제 문화관광유망축제 선정

관광객 유치 · · · 공로 최대 8억원 지원

모래를 소재로 한 국내 유일의 친환경 체험축제인 해운대모래축제(Haeundae Sand Festival)가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2011 문화관광유망축제로 선정됐다.

최근 해운대구에 따르면 이번 유망축제 선정으로 2011년부터 1억 원의 국·시비를 받고 최대 8억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또 한국관광공사로부터 홍보와 축제 컨설팅 등의 공식 지원도 받게 된다.

지난 2005년 APEC정상회의를 기념해 처음 열린 해운대모래축제는 2009년 문화체육관광부 예비축제로 선정된 데 이어 이번에 2011년 유망축제로 지정돼 개최 6년 만에 전국 대표적인 축제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 현재 전국에는 약 1200여 개의 크고 작은 축제가 있으며 이 중에서 정부의 문화관광축제에 선정된 것은 모두 44개. 이들 육성축제에 대해서는 등급에 따라 67억원의 관광진흥기금을 지원한다. 해운대모래축제는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관광비수기인 6월에 개최돼 개최 3년차에 이미 관람객이 100만 명을 돌파하고 2010년에는 120만 명이 방문해 관광객 유치에 기여한 점이 인정됐다. 또 특급 호텔 등 민간업체가 축제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민간주도형 축제로 지역 화합 측면에서 높이 평가받았다고 구

청 측은 설명 했다.

한편 구는 2011년 축제는 세계유명 모래작가를 초빙해 '알리 바바와 40인의 도적', '컬리버 여행기' 등 9개의 동화를 테마로 한 '동화이야기(Fairy Tale)' 와 같은 볼거리를 강화해 모래축제를 찾으면 마치 동화속 나라에 온 듯한 느낌을 줄 계획이다.

이효영 기자(tourbusan@daum.net)



부산 거가대로 개통으로 부산 백화점 업계 '대박'

지난 연말 거가대로 개통 이후 부산으로 원정오는 경남 거제·통영지역 쇼핑객이 크게 늘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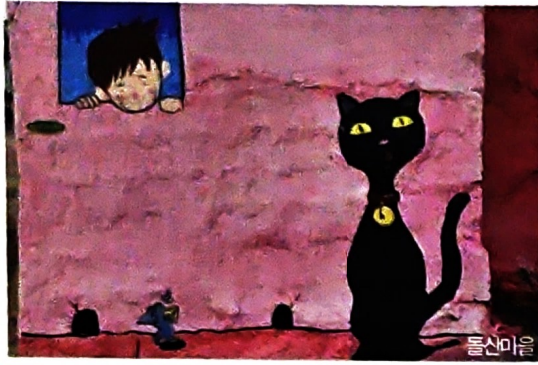
최근 부산지역 4개 백화점에 따르면 거가대로 개통 전후 2주일을 비교한 결과, 부산 롯데백화점에서 쇼핑한 거제·통영지역 고객은 개통 전 1700명에서 개통 후 4800명으로 세 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들 거제 및 통영지역 고객들의 쇼핑금액도 거가대로 개통 전 2주간 6억원 수준에서 개통 후 2주 동안 16억원으로 거의 3배 가까이로 늘었다. 특히 부산 원도심에 위치한 롯데백화점 광복점의 경우 거가대로 개통 전과 비교해 구매고객 수와 구매금액 모두 4배 이상 증가했다고 롯데백화점측은 말했다. 롯데백화점측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거제·통영지역 쇼핑객들의 연령층도 변화하고 있다. 거가대로 개통 이전 부산의 롯데백

화점을 가장 많이 이용한 거제·통영지역 고객은 20대가 36%로 전체 중 비중이 가장 컸다. 거가대로 개통 이후엔 20대 비중이 25.9%로 줄었으나 30대가 39%로 4%포인트 상승해 비중 1위를 기록했다.

이처럼 백화점 쇼핑의 주 고객층으로 알려진 30~50대 여성고객들이 본격적으로 부산으로 원정쇼핑에 나서면서 구매금액도 거가대로 개통 전보다 30대 167%, 40대 152%, 50대 300% 늘었다.

롯데백화점측은 "거가대로 개통으로 부산과의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구매력이 높은 연령층의 고객유입이 크게 늘었다"며 "거제·통영 등 경남지역 고객을 더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마케팅 이벤트를 펼치고 서비스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효영 기자(tourbusan@daum.net)



문현동 '돌산마을', 대신동 '꽃마을', 범일동 '안창마을' 관광상품 각광

영화 바다의 배경으로 등장한 문현동 돌산마을과 대신동 꽃마을, 범일동 안창마을이 새로운 관광상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2007년 6월 정부와 부산시의 지원을 받아 공공미술 프로젝트의 하나로 안(內), 창(倉), 고(庫)가 시작되고 그 해 11월 프로젝트를 완성하면서 안창마을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도시철도 범내골역에서 20번 버스나 마을버스 11번을 타고 안창마을 정류장에 내리면 이곳을 둘러볼 수 있다. 마을 어귀부터 책꽂이 모양의 벽화가 눈에 띈다. 안창마을에 온 것을 환영하는 만화벽화, 아이들이 놀이하는 모습이 그려진 벽화 등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신발의 안창을 닮아 안창마을로 불리는 이곳은 한국전쟁 당시 피란민들이 모여 살기 시작하면서 생긴 마을로 이런저런 아픔이 서려 있다. 하지만 벽화를 통해 마을이 활기를 찾기 시작하면서 부산을 대표할 만한 관광지로 떠오르고 있다.

먼곳에서 어선의 길을 밝히고 어선들의 무사귀환을 기다리는 등대, 부산 관광컨벤션뷰로는 앞으로 이들 등대를 모티브로 캘린더와 엽서, 기념품 등 다양한 관광문화콘텐츠를 개발할 계획이다. 또 등대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등대포럼도 발족할 예정이다.

부산의 등대



영도등대 · 월드컵등대 · 야구등대 · 칫빙등대와 징승등대 · APEC등대 · 송도고래등대

세계 최대 실내음악분수 롯데 광복점, '아쿠아틱 쇼', '기네스 북'에 오르다

- 중·서구 원도심 부활에 중추적 역할 기대
- 최종 실측 18.2m(물높이), 기존, 미국 '파운틴 쇼' 15m를 제치고 세계 최대규모 인증 받아
- 각종 관람기록 세우며 '부산 명물'로 우뚝! 이젠 명실상부한 '세계적 명소'로

부산의 새로운 명물'로 급부상한 롯데 광복점(점장 설봉진)아쿠아티움 내 실내 음악분수 '아쿠아틱 쇼(Aquatic Show)'가 이젠 '세계적 명물'로 우뚝섰다. '세계에서 가장 큰 실내음악분수'로 기네스 월드레코드(Guinness World Records, 이하 GWR)로 인증된 것. '아쿠아틱 쇼'가 GWR의 물높이 실측 결과, 18.2m의 높이로 기존 미국 뉴저지 주의 이틀랜틱 시티(Caesars Atlantic City) '파운틴 쇼' (fountain show)의 높이 15m 기록을 넘어선 것. 지난 10월, 서류접수를 시작으로 기네스 등재를 추진해 온 롯데 광복점은 현장검증과 최종 실측단계를 거쳐 최종 인증을 받았다.

지난 8월 롯데 광복점 그랜드 오픈때 아쿠아티움 내에 설치된 아쿠아틱 쇼는 오픈 3주만에 관람객 50만명, 또 42일 만에 100만명을 돌파하면서 일평균 2만여명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부산의 명물'로 자리잡으며 부산을 찾게 하는 또 하나의 명소가 되고 있다. 또한, 지난 10월 26일에는, 부산 시민들의 애창곡인 '부산 갈매기'와 '돌아와요 부산항에', 젊은 층을 위해서는 '소녀시대', '원더걸스' 등의 배경음악 16곡을 추가로 삽입해 다양한 고객층에 사랑을 받고 있다. 게다가, 국제 여객터미널과 KTX역, 특히, 지난 13일 개통한 거가대교로 인해 부산으로 몰리고 있는 전국 관광객들의 발길을 이 '아쿠아틱 쇼'가 더욱 재촉시킬 '관광 아이템'으로 부각되고 있어 2016년 동북아 최대의 랜드마크를 목표로 공사중인 복합생활·문화 단지인 부산롯데타운의 상징적 시설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롯데백화점 설봉진 광복점장은 "기네스북은 전 세계 177개 국가에 25개 언어로 번역, 출간되는 기록서로 이번 인증이 롯데백화점 뿐만 아니라, 부산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롯데백화점 광복점이 쇼핑과 관광명소로서도 물론이고, 중·서구 원도심의 부활을 앞당기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마케팅을 더욱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효영 기자(tourbusan@daum.net)



롯데 광복점을 방문한 고객들과 세계 최대규모 실내 음악분수로 기네스 월드레코드(Guinness World Records)로 인증된 '아쿠아틱 쇼'의 시연장면

부산시, 원도심 · 서부산권 해양레포츠 인프라 조성

부산시는 원도심권과 서부산권에 해양레포츠 편의시설을 대폭 보강할 방침이라고 최근 밝혔다. 시는 우선 원도심권인 송도해수욕장에 18억5천 만원을 투입해 해양레포츠 장비 보관실, 탈의실, 샤워실 등을 갖춘 해양레포츠센터를 건립키로 했다. 다대포해수욕장에도 2억9천만원을 들여 요트와 윈스서핑, 카이트보딩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계획이다. 또 서부산권인 낙동강 화명지구에 50억원을 들여 올해말까지 요트와 윈드서핑, 드래곤보트 등을 즐길 수 있는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서낙동강의 해포분교 폐교부지에 19억 5천만원을 투입해 강 레포츠 스쿨을 건립해 청소년 해양문화체험 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원도심권인 광안리해수욕장의 해양레포츠센터는 지난해말 완공돼 올해 봄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효영 기자(tourbusan@daum.net)



노보텔 앰배서더 부산 최초 송연순 여성 총지배인 탄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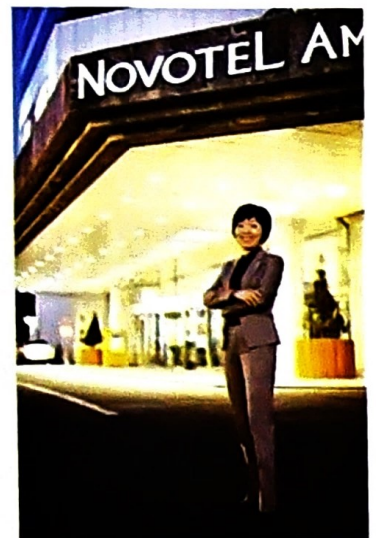
남성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특 1급 체인 호텔에 국내에서는 최초로 여성 총지배인이 탄생, 호텔업계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2011년 노보텔 앰배서더 부산은 보다 나은 서비스 및 영업실적 개선을 위해 호텔 개관 이래 처음으로 내국인 여성 총지배인을 영입하였다. 특 1급 호텔로서는 국내 최초의 여성 총지배인으로 대부분의 특급 호텔들이 본사에서 파견한 외국인 남성 총지배인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노보텔 앰배서더 부산의 이번 사례는 보기 드문 상황이다.

이번에 취임한 '송연순' 총 지배인은 호텔리어 경력 26년째를 맞이하는 베테랑으로서 1986년 하얏트 리젠시 호텔에 입문하여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의 레비뉴 매니저(객실 매출 관리담당)와 세일즈마케팅 팀장을 거쳐 노보텔 앰배서더 독산의 부총지배인을 역임한 호텔 내 다양한 분야를 두루 섭렵한 전문가이다. 2006년에는 한국인 여성으로는 최초로 세계적인 호텔 그룹 아코르(ACCOR) 본사에서 실시하는 총지배인 양성 과정을 이수하였으며 2009년 앰

배서더 그룹 최초의 여성 임원으로 승진해 그룹 계열사 노보텔 앰배서더 독산 부총지배인 역임 후 1년 반 만에 호텔리어의 꽃이라 불리는 호텔 최고 경영자 총지배인 자리에 오르게 됐다.

노보텔 앰배서더 부산은 2011년 새로운 여성 총지배인과 함께 여성 특유의 장점을 살려 편안하고 섬세한 서비스의 제공 및 보다 강화된 영업을 통해 국제적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다시 한번 일류호텔로 재도약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효영 기자(tourbusan@daum.net)

넌 왜 머리밖에 없니? 몰라몰라 특별전 부산아쿠아리움 겨울캠페인 “머리만 있는 물고기, 몰라몰라 특별전”



6일, 부산아쿠아리움은 국내 유일하게 개복치(학명: Mola mola)를 전시하는 “머리만 있는 물고기, 몰라몰라 특별전”을 진행한다. “Mola mola”는 개복치의 학명으로 멧들을 닮은 개복치의 형상을 딴 라틴어에서 유래되었다. 이번에 전시되는 몰라몰라는 모두 3마리로 머리만 있는 생김새가 아주 특이하다. 사육조건이 까다로워 국내에서는 매우 보기 힘든 종으로 이번 전시가 국내 유일이다.

2011년 소망을 기원해 볼 수 있는 “몰라몰라 소망 종이접기”, 착시효과가 살아있는 “몰라몰라 입체 포토존” 이 마련돼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일본왕복승선권, 해외왕복항공권 등을 제공한다. 온라인에서는 “몰라몰라 닮은 꼴 큰머리사진전”, “몰라몰라 2컷 만화”, 내 맘을 몰라줘서 생긴 에피소드를 공모하는 “몰라몰라 넌 내 맘 몰라” 등의 다양한 경품 이벤트도 함께한다.

[문의] 051-740-1700 / www.busanaquarium.com

티파니21의 특별한 설 연휴 준비

Tiffany21



티파니21에서 뜻 깊은 설 연휴를..

고품격 선상파티 티파니21은 1월 28일부터 2월 5일까지 설 연휴 동안 '디너투어 15%할인' 행사를 실시한다. 이번 행사기간 동안 디너투어에 승선하는 모든 고객에게 15% 할인혜택을 제공하여 긴 연휴를 특별하게 즐길 거리를 찾고 있는 고객을 맞이할 준비가 한창이다. 테이블 당 하나의 기념품을 증정하고, 토끼띠 고객이 포함되어 있으면 특별히 마련한 토끼캐릭터 인형도 선물한다. 또 이벤트 기간 중 선상에서는 와인을 50%할인 판매하는 등 풍성한 설날을 만들 예정이다.

특히, 행사기간 동안에는 선상 뷔페 메뉴에 최고급 등심을 이용한 로스트비프와 맛있는 바비큐소스 백랍이 추가되어 고객님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것이다. 가족, 연인과 함께하는 특별한 설 연휴를 계획하고 있다면 티파니21에 승선하는 것도 좋을 듯하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coveacruise.com)를 참고하세요.

[운항코스]

주간 : 동백섬→해운대→오륙도→이기대→광안대교

야간 : 동백섬→누리마루→해운대→광안대교

[운항시간]

| 런치투어 12:00~14:00 |

| 쿠키투어 15:30~17:00 |

| 디너투어 19:00~21:00 |

| NIGHT투어 22:00~24:00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439 마린시티 168

Tel. 1577-7721 / 051)743-2500

부산시티투어버스 운행코스

도심순환코스

“부산의 옛정취와 쇼핑의 즐거움을
느낄수 있는 도심순환 코스”



골드테마거리

범천동에 위치한 골드테마거리는 부산의 대표적인 귀금속 상가거리다. 주변에는 백화점과 중앙시장, 평화시장 등 재래 시장들도 가까워 거대한 상권을 형성하고 있다. 매년 10월이 되면 귀금속 상가 거리 축제가 열린다. 귀금속 세일, 경품 행사와 함께 보석, 시계류 무료 감별 및 세일 행사가 벌어져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좌천동가구거리

1950년대부터 형성된 부산시내 가구점의 발상지 좌천동 가구거리! 각양각색의 자개가 박힌 이곳의 가구들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관광 상품으로 사랑받고 있음은 물론, 드라마 <천만번 사랑해>, <겨울새> 등의 촬영 소품으로 활용될 만큼 국내에서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서면

부산에서 가장 변화한 도시 서면! 다양한 쇼핑공간이 있어 자유롭게 쇼핑을 즐길 수 있으며, 값싸고 푸짐한 먹자골목에서부터 분위기 있는 고급레스 토랑까지 모두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재래시장이 인근에 있어 품질 좋은 생활 물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광복로

오랫동안 부산시민들에게 문화생활의 중심지로 사랑받아온 광복로! 현재 광복로는 패션 1번가로 불리는데, 1백여 개의 패션매장은 물론 다양한 액세서리와 귀금속 등 다양한 유행 아이템을 구입할 수 있어 젊은 여성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다.



자갈치시장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부산하면 빼놓을 수 없는 최고의 관광명소 자갈치 시장! 넉넉한 인심의 자갈치! 아지매는 물론, 갓 잡아 올린 싱싱한 생선회까지! 부산의 활기찬 매력이 살아 숨쉬는 어패류 종합시장이다.



해운대 · 태종대 아경코스



“시티투어버스로 돌아보는 부산”
다양한 멀티미디어 관광정보와 함께
부산관광은 시티투어버스로 시작하세요!

태종대

수려한 해안절경을 자랑하는 환상적인 OCEAN VIEW! 영도해안을 따라 9.1km의 최남단에 자리잡고 있는 태종대는 암벽 난간에 위치한 부산 제일의 전망대와 등대를 통해 아름다운 바다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천혜의 관광지이다.



송도해수욕장

부산에서 제일먼저(1913년) 개장한 해수욕장이다. 예부터 잔잔한 파도와 맑은 수심, 상아빛 모래밭이 유난히 빛나 '동양의 나폴리'라고 불렸던 곳이다. 2000년부터 5년여 간 정비사업을 펼쳐 줄어드는 백사장을 확장하고 분수대 등을 설치하면서 해변공원이 되었다.



PIFF광장

부산국제영화제의 상징적인 장소이자 '친구', '인정사정 볼 것 없다' 등 영화 촬영지로도 유명한 PIFF광장은 남포동 극장가의 대명사라 할 수 있는데, 광장 중심에 새겨진 국내외 유명 영화인들의 핸드 프린팅은 영화의 메카 PIFF광장의 빼놓을 수 없는 명물! 부산국제영화제 개봉관이 밀집해 있어 매년 가을이 되면 영화제의 열기를 가장 뜨겁게 느낄 수 있다.



누리마루

세계의 정상들이 만난 세상의 꼭대기라는 의미를 지닌 APEC누리마루 하우스! 2005년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되었던 기념비적인 장소라는 의미 이외에도, 동백섬의 울창한 송림과 해운대 푸른 바다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주변 경관 때문에 부산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각광받고 있다. 현재는 국내외 관광객을 맞이하는 기념관 및 국제회의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해운대해수욕장

아름다운 바다와 함께 고급호텔, 음식점들이 밀집된 한국 최고의 휴양지이다. 1km가 넘는 긴 해안가에는 바다축제를 비롯한 연중 다채로운 문화 축제가 열린다.



PARADISE HOTEL
BUSAN

파라다이스호텔 부산

발렌타인데이 프로모션

파라다이스호텔 부산은 2월 연인들의 날, 발렌타인데이를 맞아 특별한 이벤트를 선사한다.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 또는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려는 커플들을 위해 제과점 '쁘띠빠라디'에서 쇼콜라티에가 추천하는 초콜릿 케이크와 홈메이드 스페셜 초콜릿을 선보인다. 초콜릿은 사랑의 마음을 그대로 전해줄 하트 모양, 입술 모양 등의 발렌타인 스페셜 초콜릿 세트로 12피스에 가격은 24,000원부가세 별도이다. 하트 모양의 딸기 케이크와 건페스트케이크도 만나볼 수 있다. 로비라운지 '크리스탈가든'에서는 2월 14일 저녁 7시부터 초콜릿 뷔페를 선보인다. 각종 초콜릿은 물론이고 마카롱, 쿠키 등 달콤한 디저트와 함께 커플 고객에게는 장미를 선사한다. 1인당 이용 가격은 2만원(봉사료, 세금 별도)이며 12,000원 추가 시 샴페인을 제공한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특별한 발렌타인데이의 추억, 파라다이스호텔 부산과 함께 하자.



☎ 문의 및 예약 뽀띠빠라디 (051)749-2258 · 크리스탈가든 (051)749-2230

러브스토리 패키지로 특별한 발렌타인데이 추억 만드세요!

연인들의 날, 발렌타인데이를 맞아 파라다이스호텔 부산에서는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로맨틱한 패키지 '러브스토리 패키지'를 출시한다. 패키지 이용 시 아름다운 해운대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발코니가 구비된 디럭스룸에서의 1박과 뷔페 레스토랑 '에스카피에'에서의 2인 조식, 그 외 특전들을 포함하여 290,000원(주중요금 기준)에 즐길 수 있다. 10%의 봉사료와 세금이 각각 부과된다. 제공되는 특전으로는 로맨틱한 분위기를 더해 줄 와인과 그에 어울리는 쿠키와 과일을 객실 내 제공하며 발렌타인데이를 맞아 특별히 쇼콜라티에가 만든 수제초콜릿 1박스를 제과점 '쁘띠빠라디'에서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환상적인 야경을 자랑하는 노천온천과 야외 수영장 무료 이용, 사우나 10,000원 할인 쿠폰, 한중일 및 이태리 레스토랑 등 호텔 내 위치한 레스토랑 10% 할인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추가 선택 사항으로 10만원 추가 시 객실 내 꽃다발 및 풍선 서비스, 30만원 추가 시 이태리 레스토랑 '골라비니' 2인 디너와 테이블 데코레이션 서비스, 33만원 추가 시 일본식 오리자날 스파 '르보이'에서 커플 젤리 스파와 트리트먼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문의 및 예약 (051)749-2111

부산롯데호텔 페닌슐라



하얀겨울로의 초대

바다냄새가 유난히 짙게 드리우는 겨울 부산롯데호텔 1층 페닌슐라에서는 아름다운 겨울로 고객들을 초대한다. '하얀 겨울로의 초대'라는 타이틀로 2월 2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행사는 다양한 해초와 상큼한 샐러드가 특징이다. 겨울을 상징하는 색인 'White' 코스는 노르망디식 해물 탕발을 시작으로 양송이 크림수프, 겨울야채 비니그렛, 앙갈비와 바닷가재, 화이트 초콜릿 치즈 케이크와 카페오레가 제공되며(4만 3천원), 바다를 상징하는 'Blue' 코스는 크림을 곁들인 늙은 호박수프와 신선한 계절 샐러드, 자연송이를 곁들이 안심과 광어스테이크, 북분자 무스와 다크 초콜릿이 제공된다. (3만 6천원).

로비라운지 건강 특선죽 행사 진행

부산롯데호텔 1층 로비라운지에서는 내년 2월 28일까지 '건강 특선죽' 행사를 진행한다. 달콤하고 몸에 좋은 옐로우 푸드 호박으로 만든 호박죽이 15,000원, 깨끗이 씻은 단팥과 쫄면 새알심이 일품인 단팥죽이 15,000원에 선보인다. 올 겨울 따뜻하고 부드러운 건강 죽과 함께 놓치기 쉬운 건강도 챙기고 입맛도 챙기자. (세금 및 봉사료 별도)



☎ 문의 및 예약 (051)810-6380

www.lottehotelbusan.com | blog.naver.com/blottehotel

부산웨스틴조선호텔

THE WESTIN
CHOSUN
BUSAN

연중 호텔을 가장 실속 있게 이용 할 수 있는 구정연휴 부산 웨스틴조선호텔 'Happy New Year 패키지'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은 구정 연휴를 맞아 오는 2월 1일부터 6일까지 'Happy New Year 패키지'를 선보인다. 이번 'Happy New Year 패키지'는 합리적인 가격에 다양한 혜택으로 무장해 구정 연휴를 보다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상품이다. 평소 특급 호텔에서의 편안하고 여유로운 휴식을 꿈꿔온 이라면 놓칠 수 없는 기회. 'Happy New Year' 패키지는 혜택에 따라 두 가지 타입으로 선보이며, 모든 고객에게 I ♥ Westin | ♥ Green 에코백과 레스토랑 이용 시 10~20%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특히 이그제큐티브 객실 이용 고객에게는 조르지오 아르마니 트래블 미니 키트를 추가로 제공하고, 9층 이그제큐티브 라운지에서의 조식과 소프트 드링크, 커피, 다과 등을 즐길 수 있는 이그제큐티브 라운지 해피 아워(Happy Hour)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여기에 천연 임반수로 유명한 온천사우나도 무료로 즐길 수 있어 설 준비로 피곤했던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과 즐거움을 가져다 준다. Happy New Year 패키지 가격은 객실 타입과 방향에 따라 15~27만원(세금, 봉사료 별도).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은 동백섬 입구에 위치해 앞으로는 해운대 바다를 뒤로는 동백섬의 아름다운 산책로와 풍경을 즐길 수 있다. 특히 동백섬은 깨끗하게 단장된 일주도로뿐 아니라 해안 절경을 따라 만들어진 아름다운 산책로에서 맑은 공기와 함께 광안대교, 오륙도 등을 함께 감상할 수 있어 구정 연휴 휴식을 위한 여행에 즐거움을 더해줄 듯.

☎ 문의 및 예약 (051)749-7001 <http://twcb.echosunhotel.com>

노보텔 앰배서더 부산, 벤틀타나스



BUSAN
AMBASSADOR

'싱싱한 굴과 캐비어 맛보세요'

노보텔 앰배서더 부산의 4층에 위치한 그릴 & 스테이크 레스토랑 '벤틀타나스'는 겨울철 원기회복과 면역력 강화, 피부 미용에 탁월한 굴과 세계 3대 진미 중 하나로 손꼽히는 캐비어 등 제철 식재료를 활용한 특선 요리를 오는 1월 11일부터 17일까지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메뉴는 구운 야채와 살롯을 곁들인 굴로 속을 채운 안심스테이크를 비롯하여 자연산 송이버섯을 곁들인 굴 전체, 철갑상어알을 곁들인 굴 볶음 전체, 차이브 크림을 곁들인 훈제 굴과 철갑상어알 전체 등 총 7가지의 메뉴로 겨울철 맛과 건강을 모두 만족시켜 줄 것이다. 가격은 17,000원부터(봉사료 및 세금 별도)



• 기간 : 1월 11일~1월 17일 ☎ 문의 및 예약 : (051) 746-8481

노보텔 앰배서더 부산, 설날맞이 특선뷔페

☎ 문의 및 예약 (051)746-8265

노보텔 앰배서더 부산의 프리미엄 뷔페 '씨스케이프스'에서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한국 전통 메뉴를 선보일 예정이다. 가족 혹은 친구들과 함께 명절음식을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된 이번 프로모션은 2월 2일부터 6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화전, 호박전, 녹두전을 비롯하여 꼬리찜, 떡국, 꽃감, 한과, 인절미 등 다양한 설 음식이 제공된다. 가격은 점심뷔페 40,000원, 저녁뷔페 51,000원이다. (세금 및 봉사료 포함)

해운대 그랜드호텔

HAEUNDAE GRAND HOTEL

양식당 [퍼스트클럽] [발렌타인데이 특선 코스]

보다 로맨틱한 발렌타인데이를 꿈꾼다면 해운대그랜드호텔 22층에 위치한 양식당 퍼스트클럽의 발렌타인데이 스페셜 디너를 선택하세요. 한 눈에 바라다보는 해운대 밤바다와 맛갈스런 음식이 당신의 사랑고백에 한층 낭만을 더해줄 것이다.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에 선보이는 스페셜 디너 메뉴로는 신선한 루꼴라와 새싹을 곁들인 로스트햄 샐러드와 허브와 식초로 맛을 낸 도미찜 요리, 마늘과 고추로 맛을 낸 봉골레 스파게티 또는 베이컨으로 맛을 낸 아마트리치아나 스파게티를 맛볼 수 있고, 디저트로 생딸기 케익과 커피 또는 차가 준비되어 있다. 발렌타인데이 특선 코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는 초콜릿과 와인 1잔을 무료 제공한다.

가격은 1인 38,000원(세금, 봉사료 별도)

문의 및 예약 : 양식당 [퍼스트클럽] 051) 740-0263



코모도호텔

Commodore HOTEL
BUSAN

코모도호텔 비즈니스 패키지

쌀쌀한 겨울 비즈니스맨을 위해 코모도호텔에선 비즈니스 패키지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마련하였다. 스탠드룸이 9만5000원, 디럭스룸이 11만5000원에 제공되어지며 조식 1인 포함, 사우나 수영장 무료입장권, 객실 내 인터넷 무료사용 가능하다. 주간신문이 제공되어지며 체크아웃 3시까지 연장 가능하다. 추운겨울 당신의 소중한 비즈니스를 코모도호텔과 함께 해보면 어떨까? 본 패키지는 ~2011년 3월까지 진행되어진다.

*상기금액에 세금 및 봉사료 각각10% 별도 부과

문의 및 예약 : 051)461-9701~2
홍보담당 : 김현실 주임 metelinno@commodore.co.kr
Tel. (051) 461-9726 Fax (051) 461-9739



호메르스호텔



호메르스호텔 설날민속패키지

해변을 따라 살아움직이는 파도와 도시의 숨결이 만나는 광안리, 가장 가깝게 겨울바다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곳. 해변에 산재한 열린미술관의 빛을 소재로한 예술작품들이 자연과 문화를 어우러지게 하고있다. 광안리 해변에 자리한 호메르스호텔은 민속 설날을 위한 저렴한 숙박패키지를 출시한다.

[민속패키지]

비치디럭스룸 115,700원, 설날패키지 124,000원 / 광안대교 전망룸 1박과 조식뷔페 또는 찜질방 체험을 할 수 있으며 연휴기간동안 적용된다.

• 기간 : 2011. 1. 30 ~ 2011. 2. 6 • 세금10%, 봉사료10% 별도

객실에서 내려다 본 광안대교 야경



☎ 문의 및 예약 (051)750-8000

아쿠아펠리스호텔



Hotel Aqua Palace

온천수와 함께 즐기는 사계절 워터파크

부산의 상징 다이아몬드 브릿지(광안대교)와 함께 어우러진 아쿠아펠리스 리조트 호텔은 78개 전객실이 해변쪽으로 향하고 있는 부산 유일의 온천 호텔입니다.

아쿠아펠리스에서 사용하는 지하 816m에서 뽑아 올린 심층암반 해수, 그 자체가 38°C의 심해수 온천이며 오랫동안 숙성되어 이온화된 물로서 80여종 이상의 몸에 유익한 미네랄이 가득하여 피부와 마용 그리고 건강에 좋은 성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해수 온천을 사용하는 워터파크 시설은 100m의 바디슬라이더와 파도풀, 유수풀, 비데풀 등이 있으며 수중헬스장비가 설치되어 있어 수중운동의 즐거움을 배가시켜 줍니다. 이외에도 히트니스 클럽, 요가, 에어로빅룸, 신내골프연습장, 수영장이 있어 종합레저시설로서도 많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 문의 및 예약 (051)790-2345~6

호텔리베라해운대



고객을 가족처럼 모시는
다시 찾고 싶은
“호텔리베라해운대”

호텔리베라해운대는 비즈니스와 쇼핑 그리고 생활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BUSINESS & RESORT HOTEL입니다.

☎ 문의 및 예약 (051)740-2111 Fax. 740-2100 / www.rivierahotel.co.kr

호텔농심



프랑스 겨울 구르메 프로모션

호텔농심 레스토랑 '이스탄불'에서는 1월 ~ 2월까지 프랑스 구르메 특선 요리와 소펙사 추천와인을 선보인다. 오븐에 구운 가지& 양등심 구이와 라따뚜이, 허브 튀레와 볶은 피망을 곁들이 대하구이 등 프랑스식 메인과 와인무제한이 포함된 디너&와인뷔페는 32,000원(봉사료 및 세금 별도). 발사믹에 절인 양파와 쇠고기 등심스페이크, 매콤한 토마토 소스로 만든 풍성한 스파게티 등이 포함된 브런치는 19,000원(봉사료 및 세금 별도)이다. 뿐만 아니라 프랑스 소펙사가 추천하는 특별한 와인 샤또 푸르 피블랑케, 샤또 소베이, 샤또 푸르 오 물랑 등 5가지의 와인을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다.



☎ 문의 및 예약 레스토랑 이스탄불 (051)550-2301

씨클라우드 호텔



2011 설날 Holiday 패키지 2011 Lunar New Year Holiday Package

2011년 신묘년(辛卯年) 새해를 맞이 하여 씨클라우드 호텔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민족 최대 명절인 설날을 함께 보낼 수 있는 패키지 상품을 선보인다. 설날 연휴를 맞이 하여 해운대에서 멋진 겨울 여행 추억과 휴식을 가지기를 원하는 분들을 위한 "2011 설날 Holiday 패키지"는 슈퍼리어 객실을 예약 할 시 스위트룸으로 무료 업그레이드를 해 준다. 그와 더불어 Early Bird 예약제도를 실시 하여 15일전 예약시 패키지 요금에서 5% 및 7일전 예약시 3%를 할인 해 준다.

이번 패키지에는 2인 조식 및 어린이 2인 조식 제공, 사전 요청 시에는 침구세탁도 무료로 제공 한다. 해운대 주변 관광을 위해서 부산아쿠아리움 20% 할인, 부산아쿠아리움 3D Rider 30% 할인, 티파니21 크루저 15%할인 혜택을 준다.

가격은 170,000원(부가세 별도, 토요일·업그레이드 3만원 추가)이며, 1월 28일부터 2월 10일까지 선 보인다.



☎ 문의 및 예약 (051)933-1000 팩스 : 933-1001
• E-mail : rsvn@seaclocloudhotel • http://www.seaclocloudhotel.com

낭만이 깃든 초록빛 내음 가득한 그곳에
「호텔아쿠아펠리스」가 있습니다



연회장

스카이라운지

웨딩홀

골프연습장

바디슬라이다실

수영장

21F	전망라운지
19~20F	스카이라운지
10~18F	객실
4~9F	워터파크
3F	중연회장
2F	대연회장, 소연회장, 일식당
1F	로비라운지, 필레시아테라정통레스토랑

국내최초 사계절 비치워터파크 호텔 「호텔아쿠아펠리스」

「호텔아쿠아펠리스」는 국내최초 사계절 비치워터파크 호텔로 38℃ 천연 암반 심해온천수가 사용된 워터 테마파크입니다



HOTEL AQUA PALACE

호텔아쿠아펠리스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2동 192-5
Tel. 051-756-0202 Fax. 051-790-2366

올해 외국인 관광객 880만명으로 사상 최대

한국관광공사는 올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880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작년의 782만 명보다 12.5% 증가한 수치로, 연간 기준으로 800만 명을 처음 돌파하면서 사상 최대 기록을 세우는 것이다.

외국인 관광객 수는 1978년 100만 명을 돌파한 이후 10년 만인 1988년 200만 명을 넘어선 데 이어 3년 만인 1991년 300만 명 벽을 깼다. 1998년 400만 명, 2000년과 2005년에 각각 500만 명과 600만 명을 넘는 등 1990년대 후반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국가별로는 일본인 관광객이 302만 명으로 2년 연속 300만 명대를 돌파하며 전체 외국인 관광객의 34.3%를 차지했다. 또 최근 급성장세를 보이는 중국인 관광객도 작년 대비 40% 증가

하며 전체 외국인 관광객의 21.4%인 188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됐다. 미국(65만명)과 대만(41만명) 사람이 그 뒤를 이었다.

올해에는 특히 중국·대만·홍콩 등 중화권 3개국의 관광객 수가 처음으로 250만 명을 넘어서 내년에는 일본인 관광객을 앞지를 것으로 보인다. 한류 열풍이 새롭게 불고 있는 동남아 시장의 성장세도 눈에 띄어 태국 관광객이 작년 대비 38% 증가한 26만 명이 우리나라를 찾았고, 말레이시아 관광객은 44%가 증가한 12만 명으로 집계됐다.

한국관광공사는 당초 2012년으로 잡았던 외국인 관광객 연간 1천만 명 시대를 내년으로 앞당기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부산시, 대동대학 의료관광 정보센터 파트너로 지정

부산의료관광정보센터는 부산시와 대동대학이 부산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개소한 의료관광종합지원센터로 본관 ICT빌딩 1층에 개소했다.

부산의료관광정보센터는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한 공동 마케팅, 해외 자매결연,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또한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2010 부산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양성 사업자로 지정받아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교육생을 배출하고 있다. 따라서 부산의료관광정보센터는 의료관광객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실현하는 기관으로 해외환자의 유치, 병원안내, 관광, 진료 후 귀국 및 사후관리에 대한 설명을 서비스하고 있다. 부산의료관

광정보센터는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에 소재하며 영상관, 의료관광 체험실, 종합지원실, 교육장등이 구성되어 있다.

현재 대동대학은 싱가포르 파크웨이 대학과의 협력으로 의료관광전문인력으로 양성되기 위해 38명의 학생들이 해외공동학점연수과정으로 싱가포르에서 연수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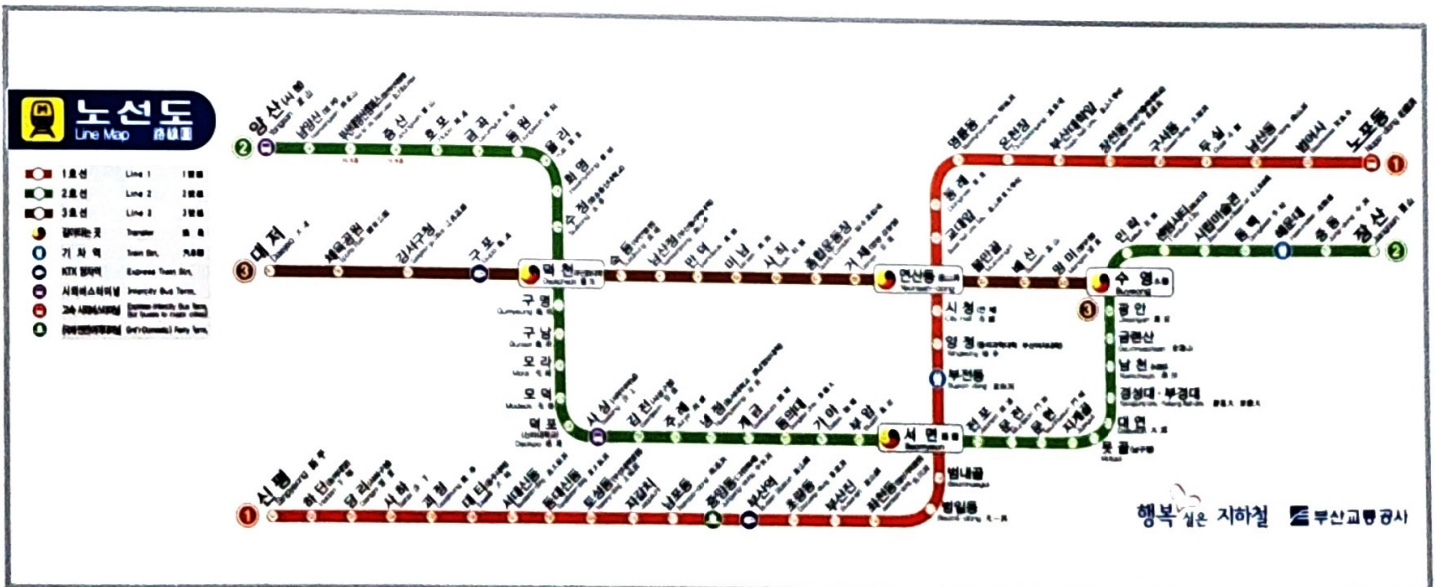
또 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교육역량강화사업 대상학교로 선정돼 17억여원의 국고를 지원 받은 데 이어, 올해도 '국제 의료관광 마켓리더 육성사업'에 10억여원의 국고를 지원 받는 등 부산시 의료관광 메카로 거듭나고 있다. 해외 대학과의 학점 연계와 해외 인턴십 등 국제 교류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부산관광안내전도>



<부산도시철도 노선도>



<길림>



이 평 규
본지편집위원

보수동 헌책방 골목 유감

오랫만에 보수동 헌책방 골목길을 찾았다. 몇 줌 안남아 헐거워진 내 젊은 날의 기억속에서도 이 골목의 풍경은 늘 경이와 여유로움으로 스며 있었기 때문일겁니다.

왔어! 한마디만 던지곤 이내 읽던 책에 눈을 돌리던 가게 주인들의 한가로움이 초라했던 내 젊음의 결핍들을 달래주기에 충분하였고, 할일없이 몇 시간을 수택의 향기에 젖어 이 책 저책을 뒤적거리다 나와도 그냥 웃는 얼굴로 보내주던 넉넉한 모습이 몇 걸음 안 떨어진 골목 밖의 사나운 세상과는 별개의 풍경이라 그저 시간만 나면 이 골목을 기웃거렸던 기억들이 새삼스러웠다.

그 곳에서는 헌책은 단지 새 책의 낡음이 아니었다. 밑줄을 그어 놓은 흔적에서부터, 간단한 메모나 이견을 밝혀놓은 정성까지, 앞서 소장했던 이들의 사연이 갈피마다 살아 숨쉬고 있어 지은이 보다 더 풍부하고 소중한 정보를 갖추고 있는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 책이다. 더욱이나 그 창연한 책더미와 함께 느린 세월을 즐기고 있는 가게주인의 의연함까지 더하면 그곳이 보고가 아니고 무엇이랴? 어쩌다 낡은 책갈피 속에서 끼워진 낙서쪽지나, 예쁜 꽃잎, 그림 옆서라도 보게 되면 세월에 바래진 삶의 모습들이 살아서 아름답게 내게 안겨오는 기적 같은 행운은 이 골목에만 내려진 또 하나의 축복이었다.

헌책을 아끼고 사랑하는 가게 주인과 고서에 파묻혀 망중환을 즐기는 고객만 있으면 책장 사이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좁아도 가게는 바로 풍요롭고 아늑한 공간이 된다.

그런데 **웬일인가?** 골목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무슨 책을 찾으러 왔느냐고 다그치는 주인의 모습이 더없이 각박해져 있었다. 찾아야 할 책이 급하지 않거나 그냥 구경만 할 람이면 가게문턱을 넘지 말

라는 식막한 표정에 사뭇 주눅이 들어 다음 가게를 기웃거리 봐도 매 한가지다. 미안해서 그냥 구경삼아 왔다니까 일 없다는 듯 돌아서 버린다. 어느 사인가 이 골목도 기어이 골목 밖의 시장모습으로 거칠어 졌구나 싶어 서글퍼졌다. 무엇이 이 골목의 의연함을 밀쳐내고 맑은 가난이 오히려 빛나기만 하던 그 자부를 사라지게 한 것일까? 야멸친 시간의 흔적들이 무색해 황급히 골목을 나와 버렸다.

얼핏 봐도 가게는 훨씬 줄어 골목은 영세해져 있었고 수택을 잃은 고서들은 먼지에 쌓여 허물어져 가는듯 했다. 모든게 변해 가는데 어찌 이골목인들 성하길 바랐으랴? 이제 이곳은 한푼이라도 싸게 사자는 고객과 눈치껏 더 받아야 겠다는 가게주인의 살찬거래만 있을 뿐 수택의 향기가 배인 여유로움이나 너그러움은 어디에서도 찾을 길이 없다.

쫓겨나듯 골목을 되돌아 나오면서 문득 이 골목을 문화 관광지로 만들자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아마도 그 주장들의 바탕은 무너져 내린 이 골목이 옛 모습 그대로 일 것이라는 몽매였거나, 아님 사라져 버린줄 알면서도 못내 떨쳐 버릴 수 없는 허망한 향수일지도 모를 일이다.

모든게 변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고집이 온양되어 빛을 발해야 찾는 이의 발길을 멈추게 하고 옛것을 스스로 아끼는 마음이 온축되어야 설레임과 경이로움으로 서성거리는 발걸음이 늘어날 것이다. 남아서 아름다운 것에 대한 그리움이 관광의 첫걸음이 아닌가?

이 속수무책한 골목이 부산의 관광지로 느닷없이 떠오를까 두렵고 안타까울 뿐이다. 행여 초조돼버린 이 골목에서 헌책 몇 권을 학생들과 흥정하고 있는 주인의 절박함이 관광의 대상이 된다면 그건 별개일 터이다.

그 겨울바다

해질녘 바닷가 언덕에 올라 파도소리를 듣는다. 아득한 전설인양 먼 나라로부터 밀려와 부딪치고 스러져가는 파도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그는 아침 집을 훌쩍 떠나 신안군에 있는 임자도에 도착, 텐트를 치러다 작년에 민박한 선주집에 방을 정해놓고 대광 해수욕장을 가로질러 삼학산 중턱에 앉아 먼 바다를 내려다본다. 해는 벌써 바다 저쪽에 기울어져 오랜 지색 석양이 바다전체를 불이 붙는 듯 덮어놓고 있다. 바다의 황혼은 정말 아름답다. 황혼만이 아니다. 바다의 것은 어느 것이나 아름답고, 신비스럽고 그리고 웅대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는 이 아름답고 신비롭고 웅대한 바다에서 언제까지라도 살고 싶다. 바다와 같이 푸르고 영원한 인생의 품이 자꾸만 그리워지는 것이다. 그는 벼랑 끝에서서 망망대해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을 맞으면서 긴 상념의 세계로 접어든다. 그 시절 그는 얼마나 죽고만 싶었던가. 그는 너무나 일찍 자신의 한계점을 보고 있었다. 끝내 잡지 못할 구름 한 끝을 찾아 바둥거리며 쫓아 나선다는 것이 구지레하게 생각되어 견딜 수가 없었다. 어쩌면 그건 그에게 세속적인 욕망이 너무 컸던 탓일지 모르겠다. 바다는 메워도 사람속의 헛된 욕망은 메울 길이 없다고 했듯이, 바다는 모든 것이 상처로부터 그를 포근히 감싸주고 있다. 태초의 혼돈과 같은 울부짖음과 갈매기의 날갯짓, 그리고 고기잡이 배들의 집어들어 도심의 가로등 같다.

이튿날 아침, 붉은 해가 솟아오른다. 하늘을 진홍빛으로 불들이고 해가 솟아오른다. 찬 바닷물에 밤새 괴로움을 참고 아침 해가 바다를 열었다. 아침 해를 바라보며 그는 우주는 바다에서 열린다는 말을 생각하고 지난날 내 안에 불 밝히고 싶었던 것들을 여기에서 찾을 것만 같은 기대에 가슴 부풀게 한다. 찬바람이 몸에 부딪는다. 아침 바다의 공허함을 몰아 옷깃을 파고 들지만 싫지만은 않다. 그는 겨울바다에서 쉴 쉬페르비엘의 미지의 바다라는 시를 떠올린다.

아무도 보고 있는 이 없을 때
바다는 벌써 바다가 아니고
아무도 보고 있는 이 없을 때의
우리들과 꼭같은 것이 되라
판 어죽이 살고
판 파도가 일어선다
그것은 바다를 위한 바다
지금 내가 하고 있듯이
꿈을 꾸는 사랑의 바다가 된다.

겨울 바다도 바로 이러한 미지의 바다다. 약간은 우울하고 회색빛이 도는 겨울 바다의 머먼 수평선을 보고 그는 그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을 흘린다. 그 눈물은 아마도 겨울 바다가 고독한 사람의 몸짓 같은 것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마치 고독하기 위해서 세상을 살아온듯이...

btjbusan@hanmail.net

2010 부산 10대 히트상품 선정의 의미



우석봉
부산발전연구원 연구위원



부산발전연구원은 '2010년 부산 10대 히트상품'을 선정, 지난 12월 20일 발표했다. 10대 히트상품 선정은 부산에서 히트한 상품·시책·인물 등을 통해 한해 부산의 키워드를 알아보기 위해 추진한 것이다.

부산 10대 히트상품은 전문가 추천 및 관련 업체와의 인터뷰, 연구원 메일링 서비스 회원 설문조사 등 다양한 조사를 거쳐 선정했다. (부산발전연구원 메일링서비스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12.6~12.13, 응답 292건). 특히 ▷부산지역에서 생산된 상품 ▷부산에서 시행된 시책 ▷부산지역에 영향을 미친 인물·기관 ▷전국적으로 히트한 상품 중 부산연관 상품 등 지역특성을 반영한 4개 분야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 2010년 부산 10대 히트상품에는 ① 3대축제 ② 저가항공(에어부산) ③ 산복도로 ④ 스마트폰 ⑤ 거가대교 ⑥ 이대호 ⑦ LED ⑧ 부전마켓타운 ⑨ 산수유(천호식품) ⑩ 갈맷길이 선정됐다.



롯데지이언츠 이대호

제 1위로 선정된 부산국제영화제, 부산불꽃축제, G-Station은 역대 최대 규모로의 성공개최를 통해 세계인의 축제로 도약한 점이 인정받았다. 제 2위로 선정된 저가항공(에어부산)은 저렴한 운임, 독창적 마케팅으로 국내저가항공시장 1위로 부상하여 돌풍을 일으킨 점이 인정받았다. 제 3위로 선정된 산복도로는 많은 역사·문화 자원이 흩어져 있고 서민들의 애환이 배어 있는 곳으로 부산형 도시재창조의 새로운 모델로 부상한 점이 인정받았다. 제 4위로 선정된 스마트폰은 기존의 네트워크 체계를 탈피하여 소셜네트워크를 가속화시키는 새로운 기반을 조성한 점이 인정받았다. 제 5위로 선정된 거가대교는 세계적인 토목기술이 총집결된 교량으로 부산-거제 통행거리, 시간, 비용이 절반으로 단축시켜 부산·경남의 랜드마크이자 전국적인 관광수요를 견인한 점이 인정받았다.



“ 제5위로 선정된 거가대교는 세계적인 토목기술이 총집결된 교량으로 부산~거제 통행거리, 시간, 비용이 절반으로 단축시켜 부산·경남의 랜드마크이자 전국적인 관광수요를 견인한 점이 인정받았다. ”



- ① 이기대둘레길
- ② 산복도르
- ③ 에어부산
- ④ 스마트폰
- ⑤ 부전마켓
- ⑥ 거가대교
- ⑦ 광안대교 LED조명
- ⑧ 천호식물

제 6위로 선정된 이대호는 타격 7관왕과 세계신기록 9게임연속흡린 수립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수립한 점이 인정받았다. 제 7위로 선정된 LED(발광다이오드)는 에너지 절감, 친환경의 이상적인 광원으로 급부상 속에 부산에도 LED 분수 'LED 용백' 등 LED 광원을 활용한 시설물이 잇따라 등장한 점이 인정받았다. 제 8위로 선정된 부전마켓타운은 시장과 문화의 만남을 통해 번신하는 전통시장 조성을 통해 지역문화공간 겸 관광지로 활성화하는 데 성공한 점이 인정받았다. 제 9위로 선정된 산수유는 궁금증을 불러 일으키는 내용의 부산 사투리 광고로 소비자에게 어필하여 성공한 지역기업이라는 점이 인정받았다. 제 10위로 선정된 갈맷길은 산·바다·강을 아우르는 복합적 형태의 길로 건강보행, 생태·경관, 문화·관광·여가 중심의 부산만의 길이란 점이 인정받았다.

10대 히트상품을 통해 본 지난 부산의 키워드는 재창조, 네트워크, Wellthy(wellbeing + healthy)로 나타났으며, 이들 상품은 2010년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부산지역 경제와 관광활성화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사장님, 알고계세요?

16억 중국인들은 은련(CUP)카드를 사용한다는 사실!

중국 관광객 은련카드 소비 캠페인 매출 255% ↑

2010.11.08 김지은 기자

위원회는 한국관광공사, 중국은련카드사, 비씨카드사와 공동으로 7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은련카드를 이용해 35만원이상 결제한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경품이벤트 등 쇼핑관광 활성화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전년 동기 매출액인 503억에 비해 25.6%증가한 1285억의 매출을 달성했다.

특히, 중국 국경절 특수기간(10월 1~7일)이던 10월은 명동 특구에 아치, 거리배너, 현수막, 전단지 배포등을 통해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캠페인을 적극 알려 국내 은련카드 사용실적이 지난해 10월 5만 3000건 189억에 비해 230% 증가한 12만건 437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롯데백화점은 318%, 신세계 270%, 현대백화점 81%등 유통업계 역시 중국 관광객 쇼핑 매출 호황을 누리기도 했다.

은련카드 가맹점, 이제는 가입하셔야 합니다!

현재, 국내 주요 가맹점들이 은련카드를 수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해당 가맹점의 중국 관광객 매출이 증대 되고 있습니다!

● 부산지역 주요 은련가맹점 현황

면세점 롯데면세점(서면점, 김해공항점), 파라다이스 면세점
백화점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센텀시티점)
특급호텔 롯데호텔, 파라다이스 호텔
쇼핑센터 용두산공원쇼핑센터, 광복로 일대, 남포동 지하상가

● 은련카드 가맹점 가입 절차

국내 모든 비씨카드 가맹점은 '은련카드 가맹점' 으로 손쉽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은련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가맹점의 신용카드 단말기 정비

가맹점은 신용카드 단말기를 관리하는 뱅사 또는 뱅대리점에 전화 신청

신용카드 단말기 정비완료 사실 전화 통보

'은련카드 한국가맹점 관리센터' ☎ 1588-7418

은련카드 가맹점 가입 절차 진행

- ① 은련카드 가맹점 특약서 체결
- ② 비씨카드의 은련 특약가맹점 전신등록
- ③ 신용카드 단말기에서 은련카드 테스트
- ④ 은련카드 스티커 부착

'한국가맹점 관리센터' 직원이 가맹점을 방문하여 모든 사항을 편리하게 처리하여 드립니다.

가맹점 가입 완료





Tourism Promotion Organization
for Asia Pacific Cities

Tourism Promotion Organization for Asia Pacific Cities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고의 관광도시 네트워크
TPO 회원 도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한국 안동, 부산, 부산 중구, 부여, 창원, 춘천, 대구, 대전, 동해, 강릉, 거제, 김해, 광주, 경주, 하동, 익산, 인천, 제주, 전주, 남해, 포항, 속초, 성남, 통영, 울산, 영주
- 중국 청두, 디렌, 광저우, 항저우, 칭다오, 산야, 상하이, 선양, 쑤저우, 톈진, 우루무치, 웨이하이, 옌타이
- 일본 후쿠오카, 가고시마, 기타큐슈, 쿠마모토, 미야자키, 나가사키, 오이타, 오사카, 사세보, 시모노세키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수라바야, 족자카르타
- 말레이시아 조지타운, 이포, 코타키나발루, 멜라카
- 베트남 다낭, 하이퐁, 하노이, 호치민
- 태국 방콕
- 필리핀 마닐라
- 타이완 가오슝
-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이르쿠츠크



따 뜻 한 햇 별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

해안선을 따라 걷는 해변

사람이 파도치는 겨울바다

언제였나요?
강신만의 겨울바다
강신만의 겨울온천

해운대 겨울바다, 파라다이스호텔 부산

파라다이스호텔 부산
Winter Package

해운대 바다가 한눈에 펼쳐지는 파라다이스호텔 부산 노천온천에서의 휴식...
겨울에는 편인함과 여유로움이 있습니다.
객실 예약 및 문의 : (051)749-2111 / www.paradisehotel.co.kr



PARADISE HOTEL
BUSAN

The Leading Hotels of the World